

현 경제상황 평가 및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2006. 7. 6

재 정 경 제 부

< 목 차 >

I. 현 경제상황 평가	1
1. 최근 경제상황 점검	1
2. 체감경기 및 소득분배	11
3. 성장 잠재력	14
II. 2006년 하반기 대외 경제여건 점검	17
1. 세계경제	17
2. 국제유가	18
3. 국제금융시장	20
4. 세계 IT 경기	22
4. 평가	23
III. 국내 경제전망	24
1. 성장	24
2. 고용	33
3. 물가	34
4. 경상수지	35
IV. 종합 평가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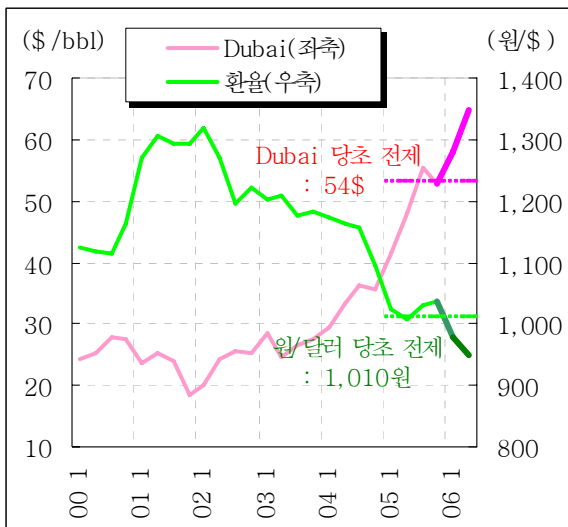
I. 현 경제상황 평가

1. 최근 경제상황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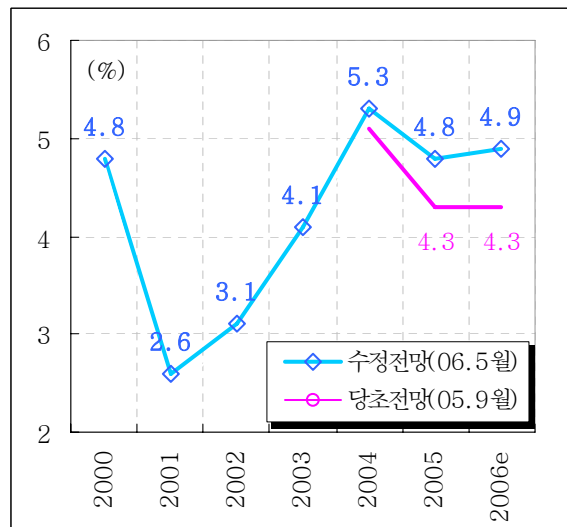
(1) 경기 : 연초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잠재수준의 성장세 지속

① 대외적으로 유가·환율 등 여건은 악화되었으나, 세계경제는 당초 전망보다 빠르게 성장

유가·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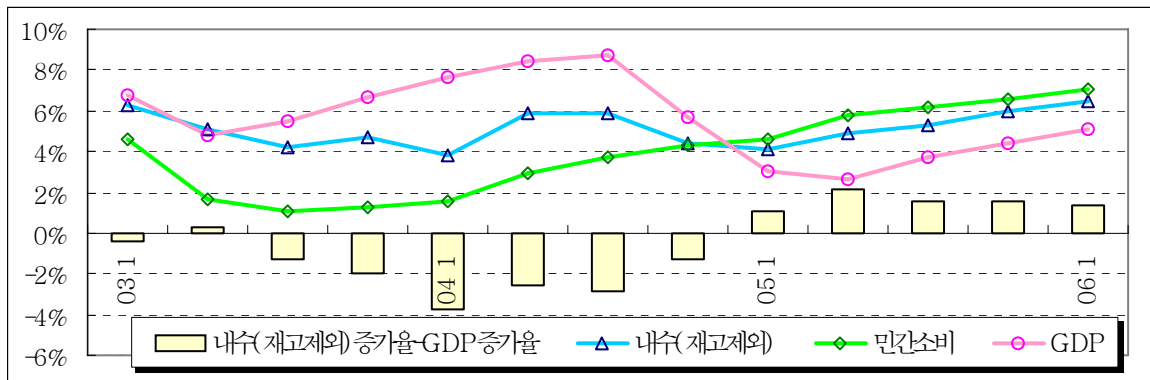


세계경제 성장률(IMF 기준)



○ 이에 따라 대외부문의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로 일부 상쇄되는 가운데, 내수도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다소 빠른 회복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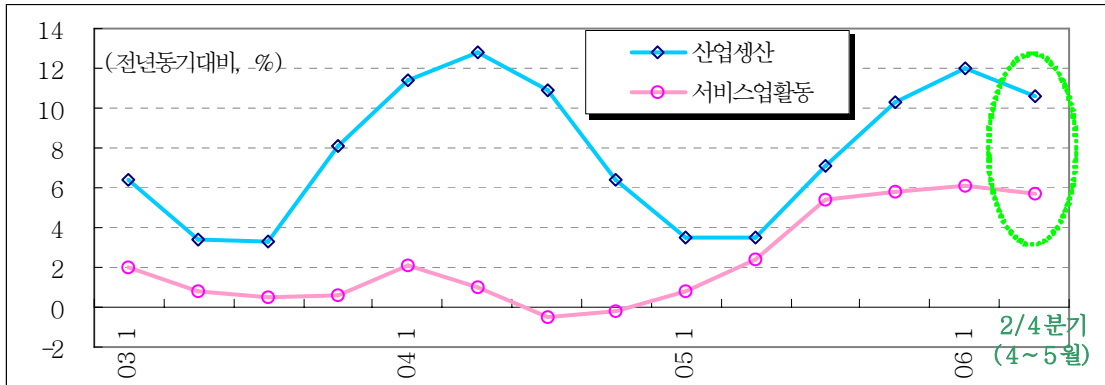
내수와 GDP 추이 (명목 기준)



② 최근 우리 경제는 그간 예상보다 빨랐던 성장속도가 정상화 되면서 내수와 대외부문이 보다 균형을 이루며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4~5월중 산업생산, 서비스업활동 등 지표 추이를 감안할 때, 2/4분기 성장률은 5% 중반 예상(계절조정 전기비 1% 내외)

산업생산 및 서비스업 활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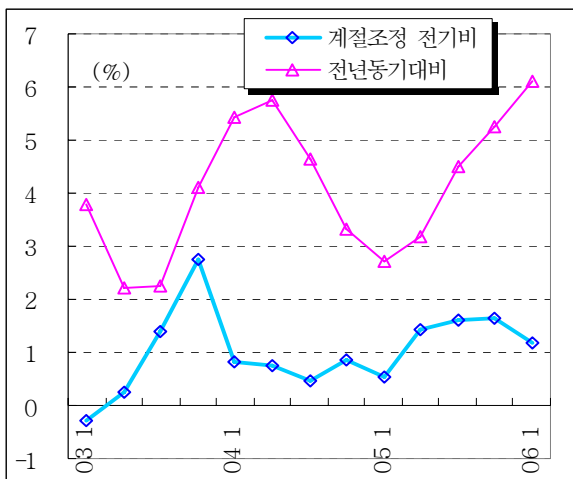


- 최근 소비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나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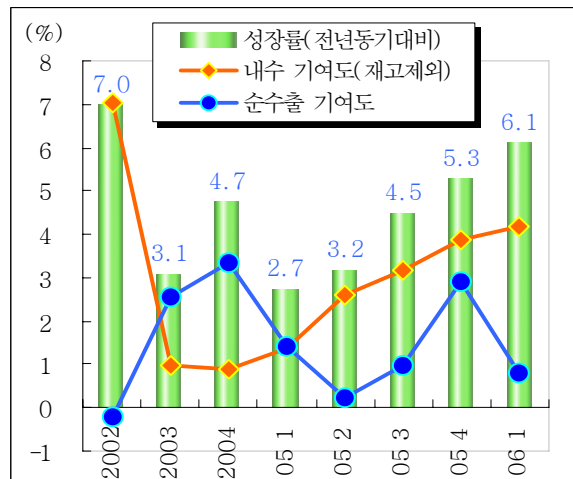
* 소비재판매(%) : (05.3/4)4.4→(4/4)6.8→(06.1/4)5.0→(4~5)5.4
 * 수출(통관,%) : (05.3/4)15.4→(4/4)11.4→(06.1/4)10.6→(2/4)17.1

⇒ 내수의 성장기여가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1/4분기중 크게 감소했던 순수출의 성장기여 확대 전망

경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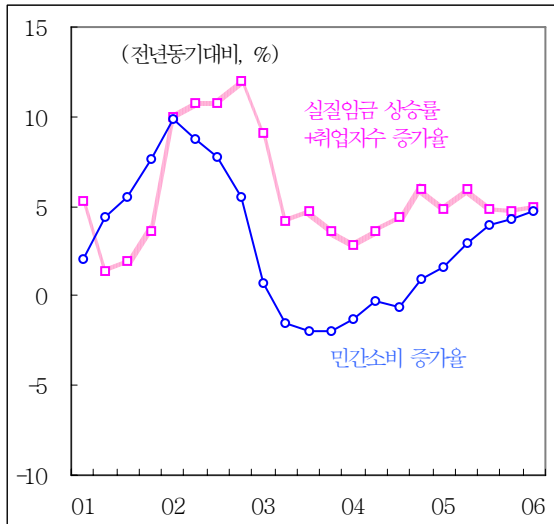
내수·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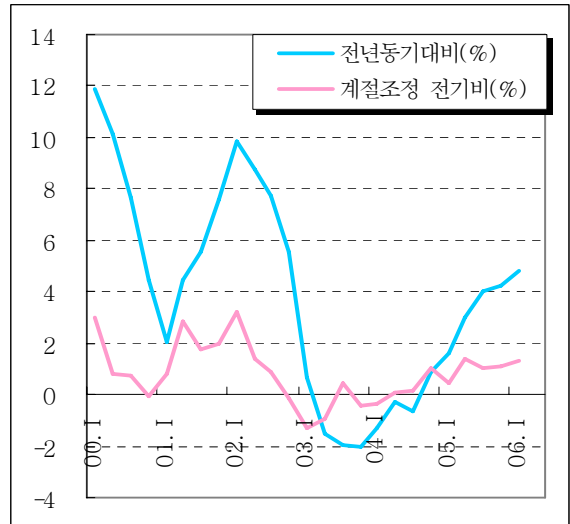
③ 민간소비는 지난해이후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
(금년 1/4분기 실적 : 전년동기대비 4.8%, 계절조정 전기비 1.3%)

- 소비관련 여건을 보면, 가계부채 조정이 대체로 마무리된 가운데 고용·임금 등 가계소득여건은 완만한 개선흐름 지속

가계소득여건 추이



민간소비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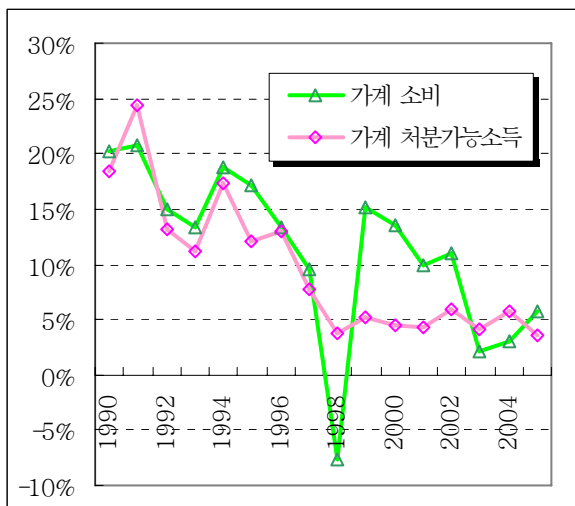


- 다만, 소비증가세가 소득보다 빨라 지난해 가계저축률이 3.9%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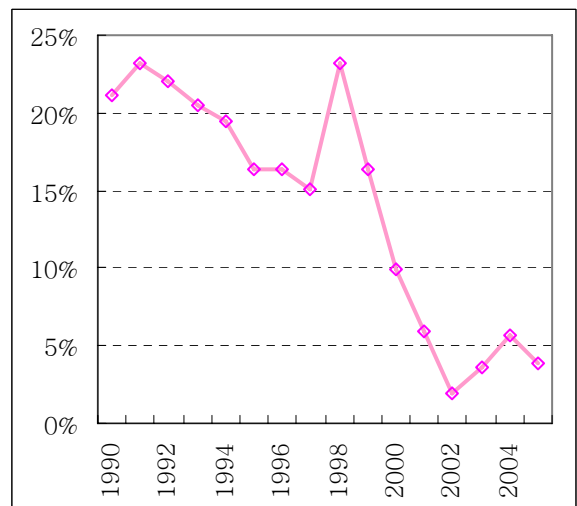
- 이는 저축률 회복과정에서 소비 증가세가 조정을 받을 소지가 있음을 의미

* 주요국 가계 저축률(% , 03년) : 헝가리 17.3, 프랑스 11.1, 독일 10.7, 이태리 10.5, 아일랜드 8.3, 일본 6.3, 미국 1.4

가계소득과 소비(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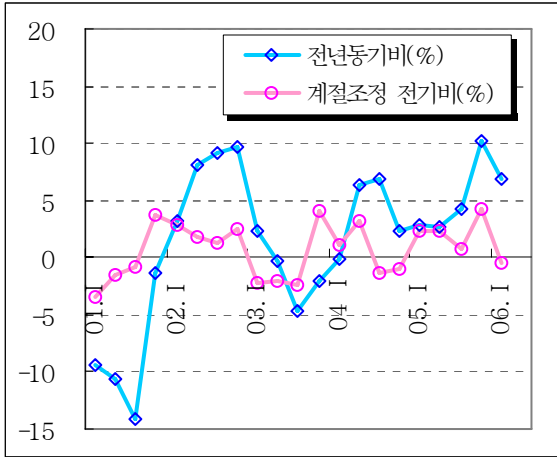
가계저축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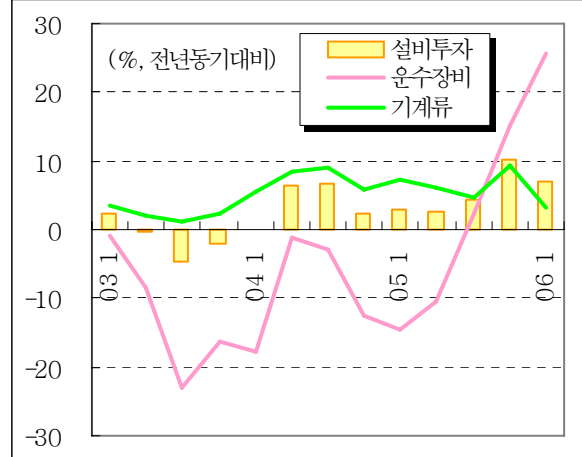
④ 설비투자는 당초 전망대로 내수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는 모습 (금년 1/4분기 실적 : 전년동기대비 6.9% 증가)

- 그간 투자 부진의 주요인이었던 운수장비 투자(05년 설비투자 대비 비중 17%)가 민간소비 회복을 반영하여 큰 폭 증가

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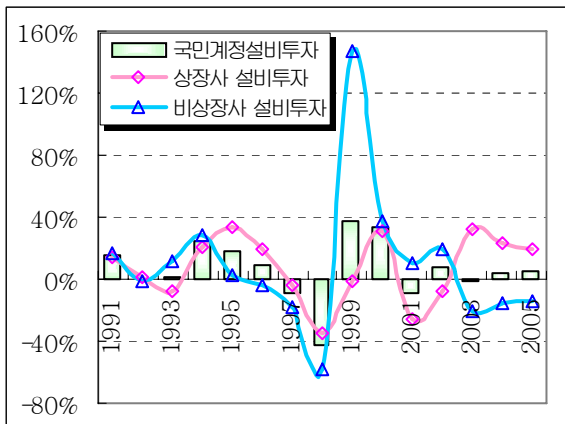


자본재형태별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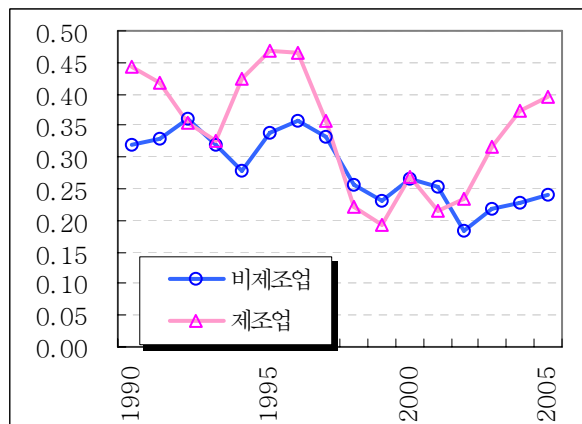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설비투자가 2003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 중소기업은 중국부상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으로 수익성 악화추세가 이어지면서 3년 연속 감소하는 부진세 지속
- 업종별로는 제조업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전 수준에 접근해갈 정도로 회복되고 있는 반면
 - 비제조업은 아직 외환위기 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증가 추이



업종별 설비투자성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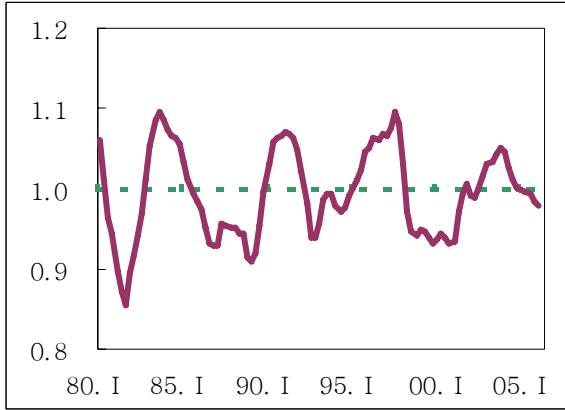


<주> 출처 : KDI, 설비투자성향 = 설비투자액 /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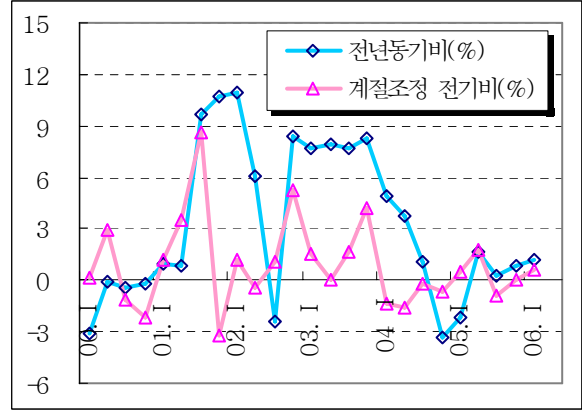
⑤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순환주기상 위축국면이 이어지면서 부진한 모습(금년 1/4분기 실적 : 전년동기대비 1.2% 증가)

※ 건설경기는 2003년까지 확장세가 이어지다가 04년부터 위축국면에 진입

건설투자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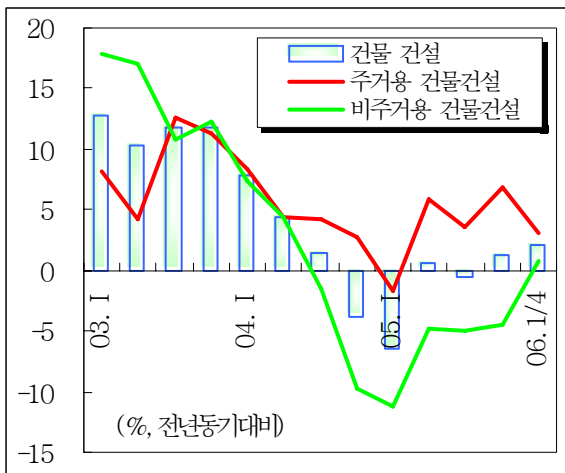
건설투자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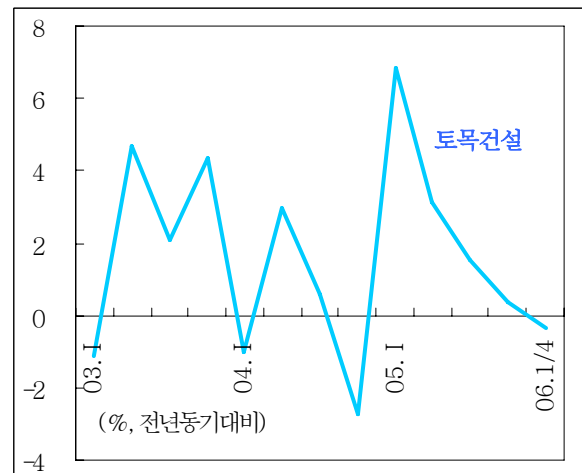
○ 공종별로 볼 경우 건물 건설 증가세는 소폭 확대된 반면, 토목 건설은 감소세로 전환

- * 05년 건설투자대비 비중(%) : 건물 59(주거용 32, 비주거용 28), 토목 41
- 주거용 건물건설은 2004년중 수주 감소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증가세가 둔화
-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04년 3/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에서 벗어나 소폭 증가세로 전환
- 토목건설은 지난해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감소세 시현

건물 건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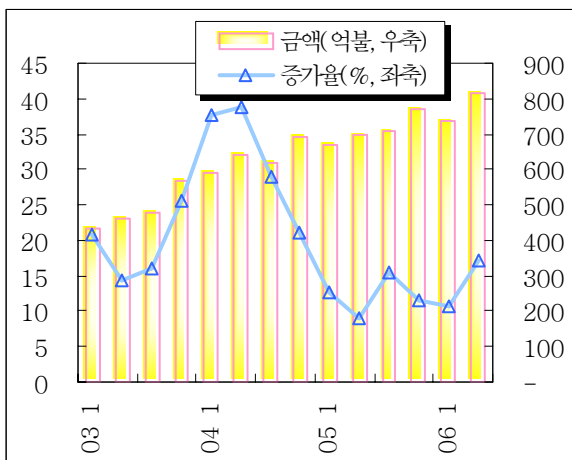
토목 건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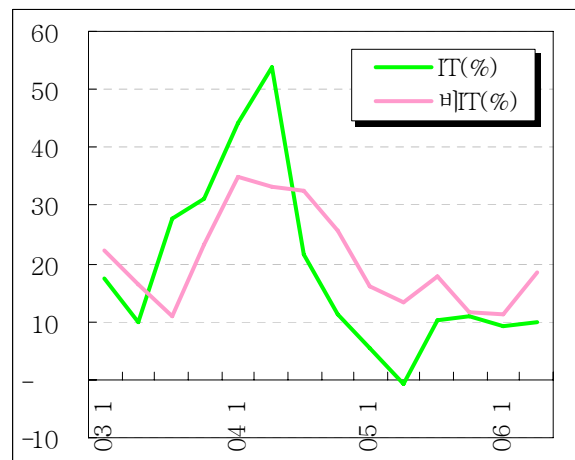
⑥ 수출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호조 등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증가세

- 금년 1~6월중 13.9% 증가하여 지난해 상반기(10.7%)보다 높은 증가세를 시현
- 특히, 작년에 부진했던 IT수출의 증가세가 금년들어 확대되고 있으며, 비IT부문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2005년 수출 대비 IT 비중 29%, 비 IT 비중 71%)

수출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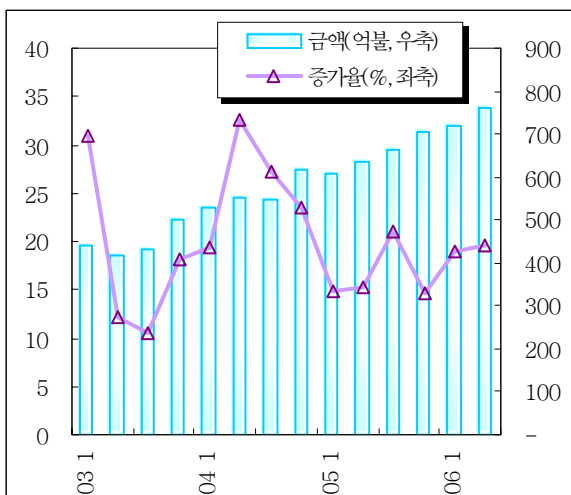
IT·비IT 수출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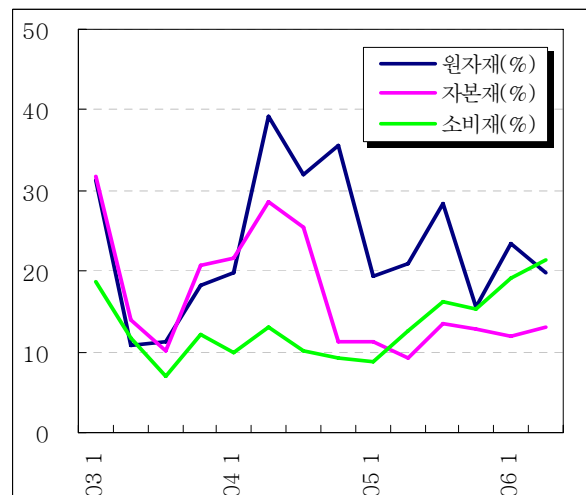
⑦ 수입은 내수회복,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금년 1~6월중 19.3% 증가하여 수출보다 높은 증가세)

- 원유 등 원자재 수입과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05년 수입대비 원자재 비중 55%, 소비재 비중 10%, 자본재 비중 35%)

수입 증가 추이



형태별 수입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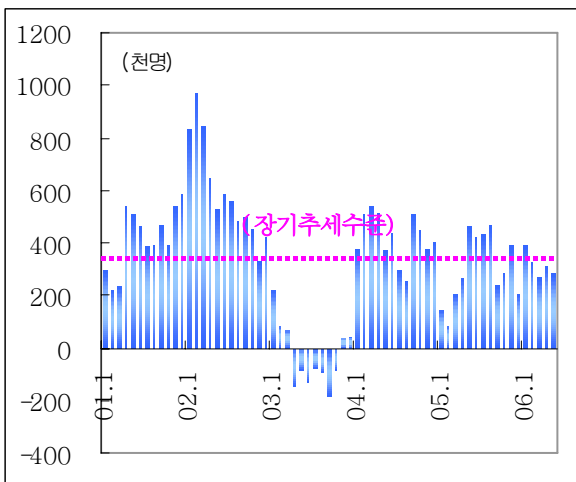
(2) 고용 : 경제의 고용창출능력 둔화를 반영하여 당초 전망보다 다소 낮은 추세수준에서 완만한 개선흐름 유지

① 취업자는 금년 1~5월중 전년동기대비 32만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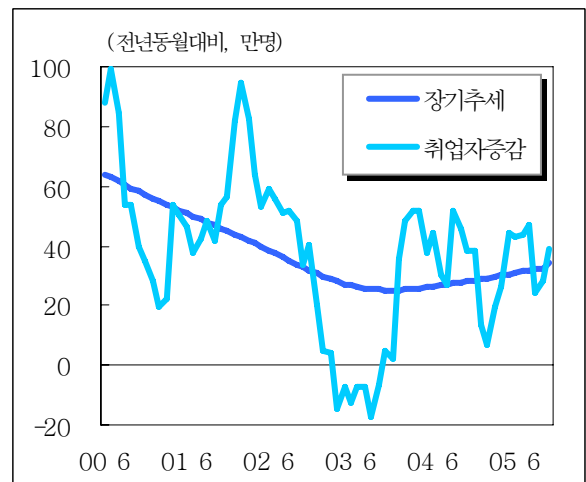
* 취업자(증감,만명) : (05.1/4)14→(2/4)38→(3/4)38→(4/4)29→(06.1~5)32

○ 지난해 2/4분기 이후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당초 전망(상반기 35만명)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

취업자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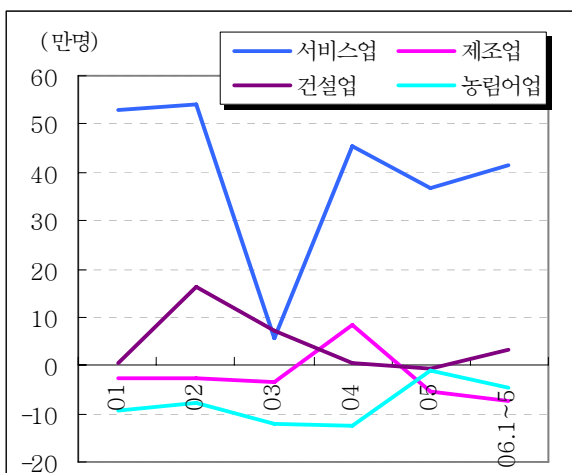


취업자 증가 장기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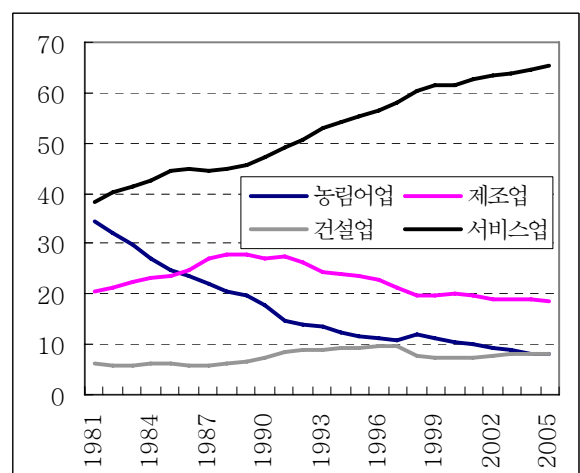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1~5월중 42만명이 증가하여 주된 고용창출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에서는 8만명이 감소하여 고용 개선폭을 제약

업종별 취업자 증감



전체 취업자대비 업종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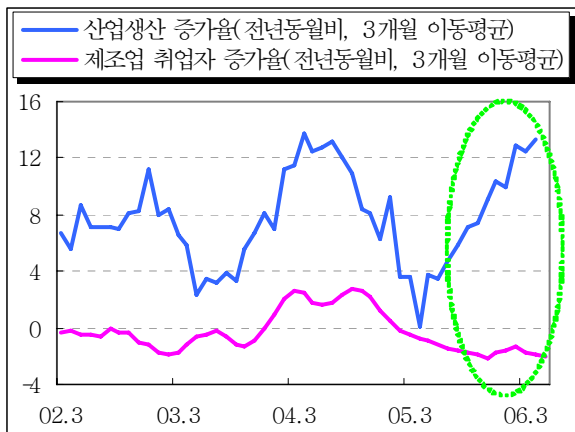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는 2001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면서 제조업 생산과의 괴리가 확대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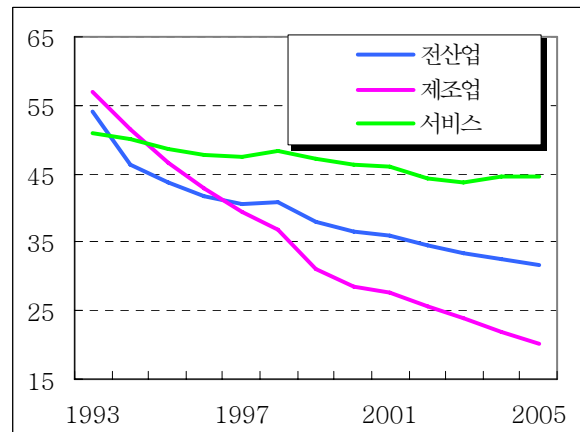
- IT 중심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취업계수의 큰 폭 하락, 공장 해외이전 등으로 고용창출능력이 둔화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고용통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00~05년중 연평균 외국인근로자 고용 : 2만명)

제조업 생산과 취업자 추이



취업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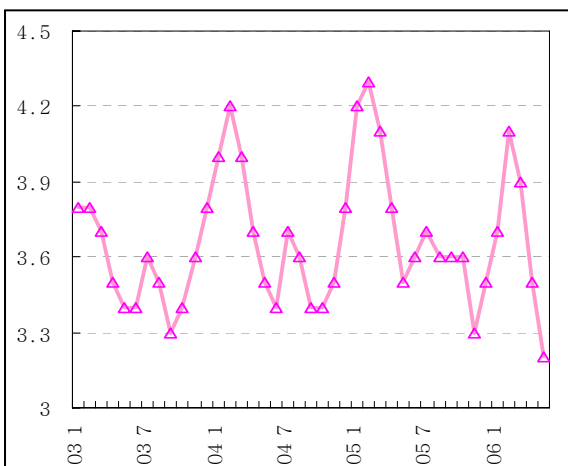


② 실업률은 경기회복과 경제활동인구 증가세의 둔화 등에 따라 당초 전망대로 하향세 지속(1~5월중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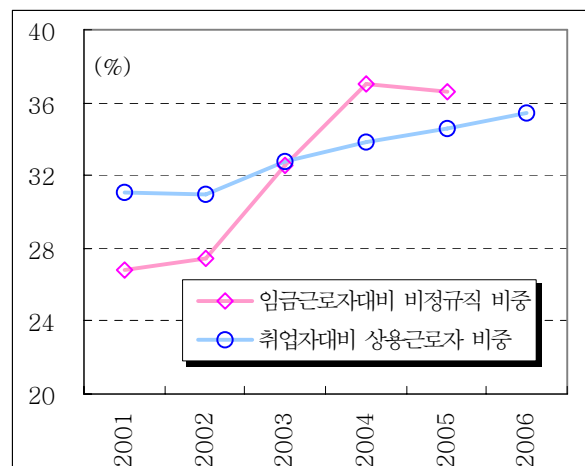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 (02)2.0→(03)0.2→(04)2.0→(05)1.4→(06.1~5)1.1

③ 고용의 질은 2004년까지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악화되었으나, 05년 이후 비정규직 증가세가 둔화되고 상용직 근로자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실업률 추이



고용의 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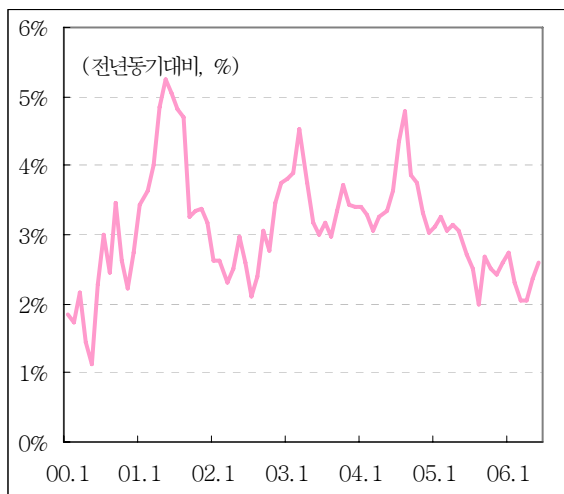


(3) 물가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지속, 환율 하락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다소 낮은 안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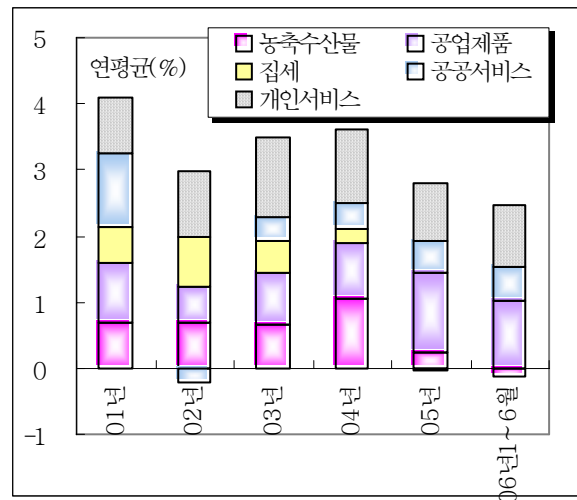
① 소비자물가는 금년 1~6월중 2.4% 상승하여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2%대 안정세를 지속

○ 국제유가 상승 등 부담요인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 농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안정기조 유지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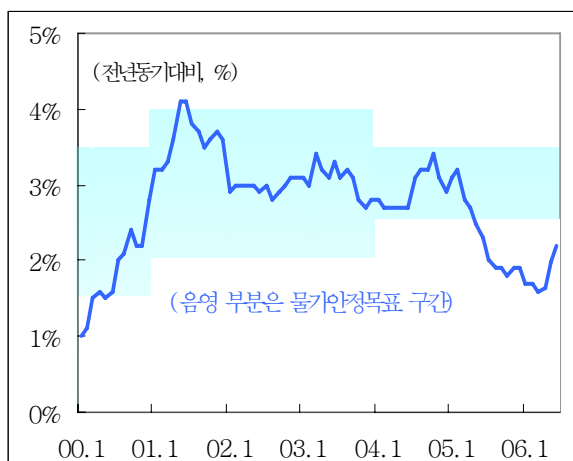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부문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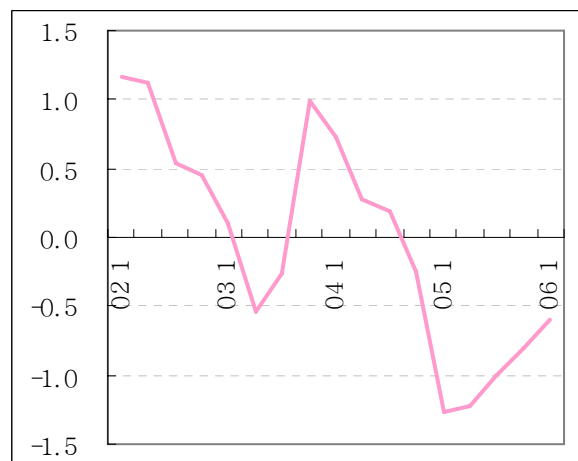
② 근원 물가(소비자 물가에서 석유류·농산물 제외)역시 1~6월중 1.8% 상승에 그쳐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구간(2.5~3.5%)을 하회

○ 2003년 이후의 경기부진 영향으로 아직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

근원물가 추이



GDP 갭률 추이



<주> GDP 갭률 = [(실질 GDP-잠재 GDP)/잠재 GDP] × 100

(4) 경상수지 : 내수회복에 유가상승 등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당초 예상보다 흑자규모가 빠르게 축소

① 경상수지는 2003년 이후 큰 폭의 흑자기조를 지속하였으나, 금년 1~5월중에는 △14.5억불 적자로 반전(05.1~5월 62.4억불→06.1~5월 △14.5억불, △76.9억불)

* 경상 수지(억불) : (02)53.9→(03)119.5→(04)281.7→(05)165.6
 (GDP대비비중,%) 1.0 2.0 4.1 2.1

② 부문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적자폭이 확대

○ (상품수지) 수출은 호조세를 보였으나, 수입이 유가상승 등으로 큰 폭 증가하면서 흑자폭이 크게 감소(05.1~5월 141.0억불→06.1~5월 98.3억불, △42.7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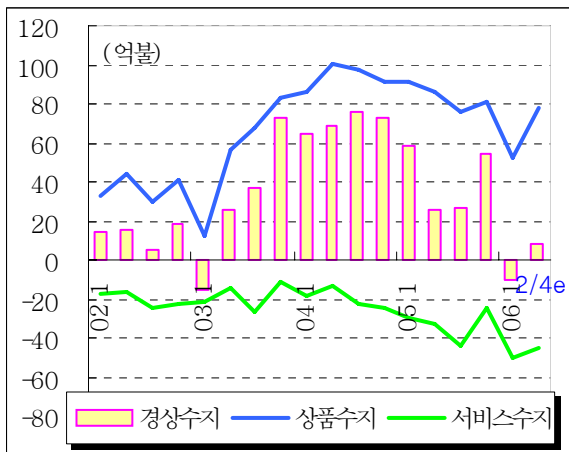
○ (서비스수지)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여행수지 악화, 운수수지 흑자 감소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크게 증가(05.1~5월 △51.2억불→06.1~5월 △77.0억불, △25.8억불)

○ (소득수지) 대외배당금과 이자 지급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여 적자폭 증가(05.1~5월 △17.2억불→06.1~5월 △19.7억불, △2.5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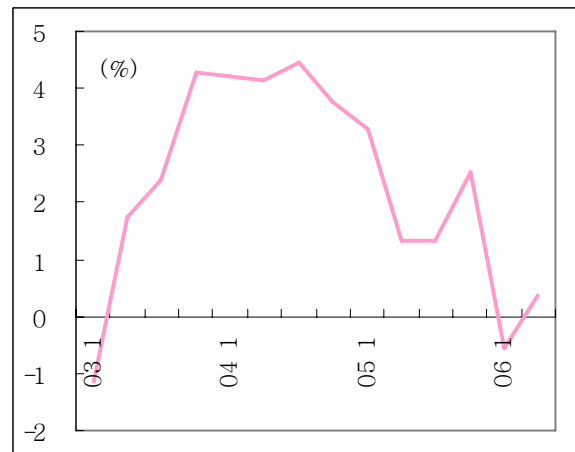
* 대외배당금 지급(억불) : (05.1~5)47.0 → (06.1~5)50.0

* 대외이자 지급(억불) : (05.1~5)15.9 → (06.1~5)21.1

경상수지 추이(억불)



GDP대비 경상수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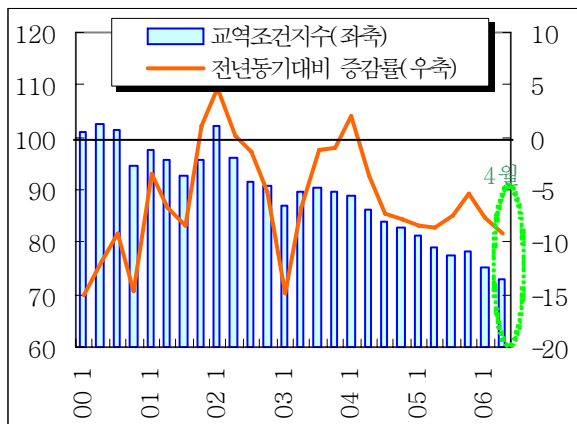
2. 체감경기 및 소득분배

(1) 체감경기 :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등 외생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당초 예상보다 회복이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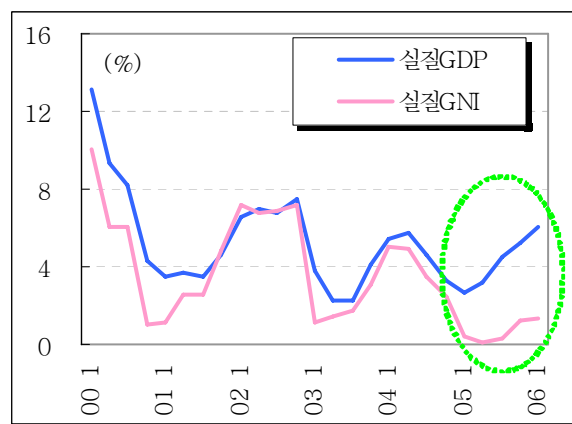
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추세**가 이어지면서 **GDP와 소득지표간 큰 폭 괴리가 지속** (금년 1/4분기중에도 실질 GDP는 6.1% 증가하였으나, 실질 GNI는 1.3% 증가에 그침)

○ 2/4분기에도 4~5월중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소득지표 개선이 지연될 전망

교역조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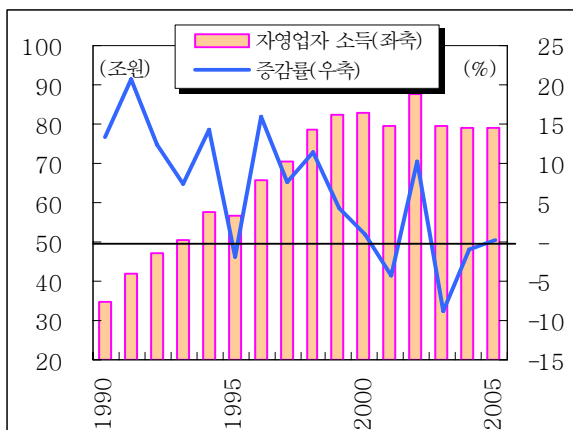
실질 GDP와 실질 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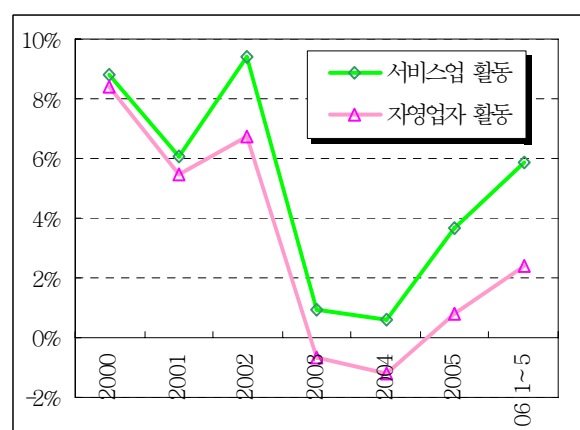
② 전반적인 서비스업 활동은 당초 예상대로 6%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활발한 편이나,

○ 대형 유통업·금융업 등을 제외한 영세 자영업분야는 낮은 생산성과 대기업과의 경쟁 등 경영여건 악화 추세속에서 아직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

자영업자 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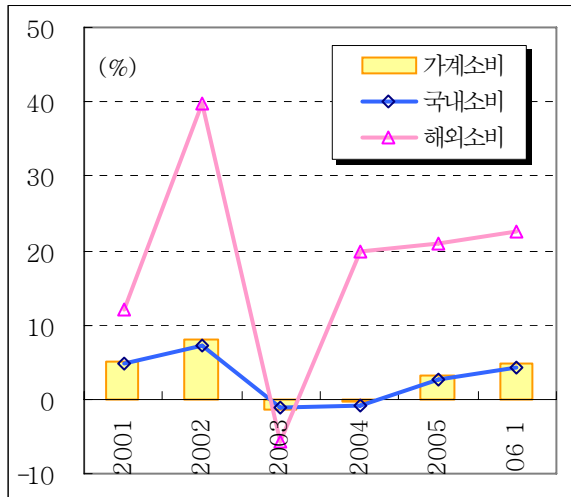
서비스업과 자영업자 활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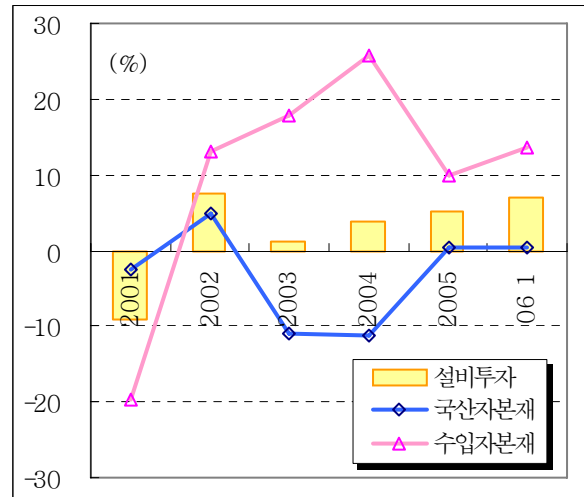
③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당부분이 해외소비나 수입자본재 증가에 기인

- “국내 생산·고용의 증가 → 소비 증가 →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제약

국내소비와 해외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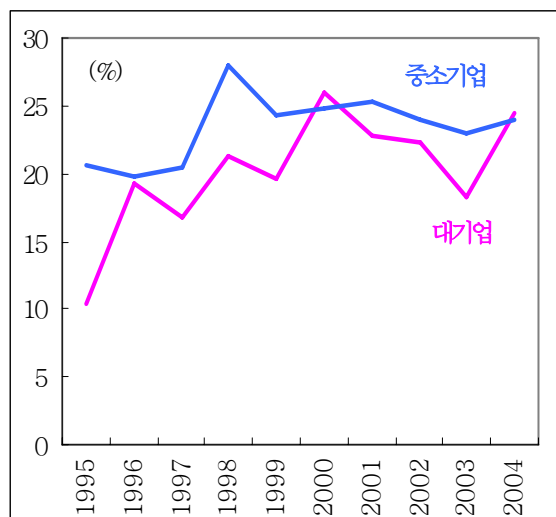
국산·수입자본재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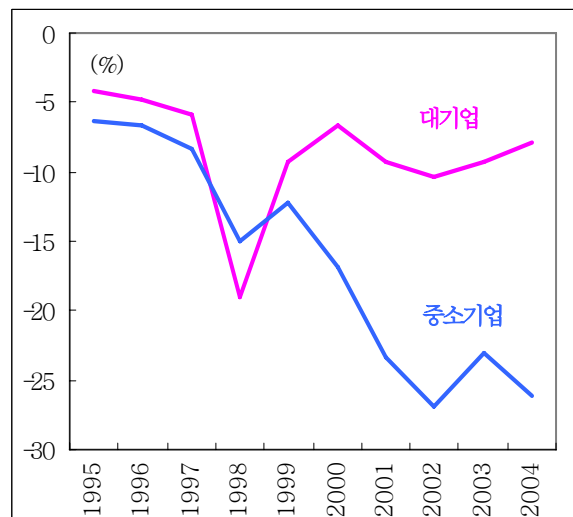
④ 경제양극화 추세속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선도 중소기업은 높은 수익성을 유지(대기업과 비슷한 수준) 하고 있으나

- 중국 경제의 침투 등에 따른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저기술 분야의 한계 중소기업 수익성은 크게 악화 (한계 대기업보다 수익성이 큰 폭으로 악화되는 추세)

상위 10% 그룹의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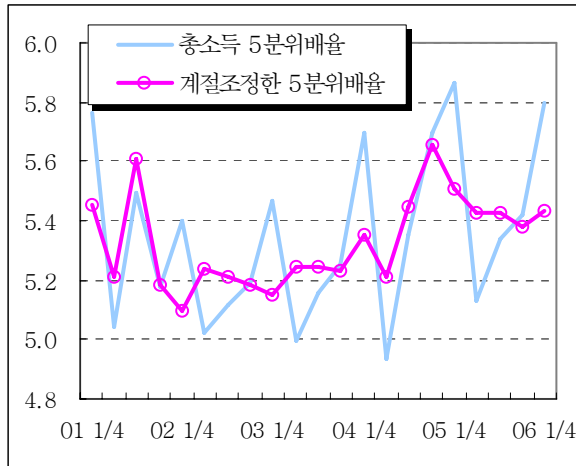
하위 10% 그룹의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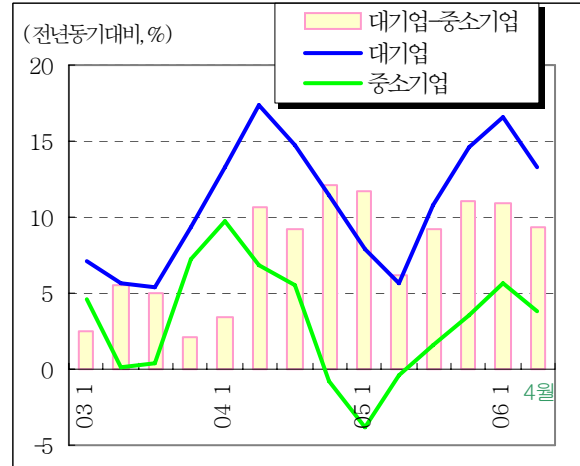
(2) 소득분배 : 성장과 분배간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개선이 미흡

① 계절요인을 제거한 소득 5분위배율은 05년 이후 하락추세를 나타내다가 금년 1/4분기중 오히려 소폭 상승했으며 대기업·중소기업간 생산 격차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소득5분위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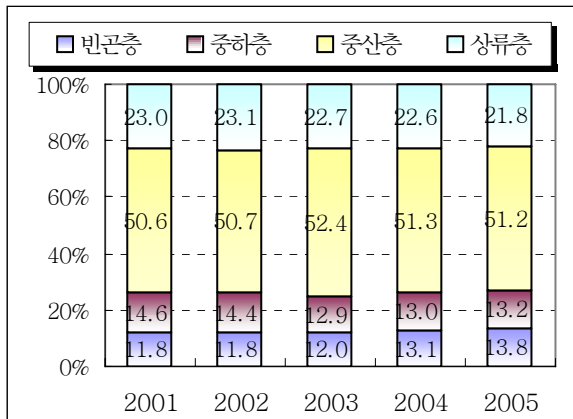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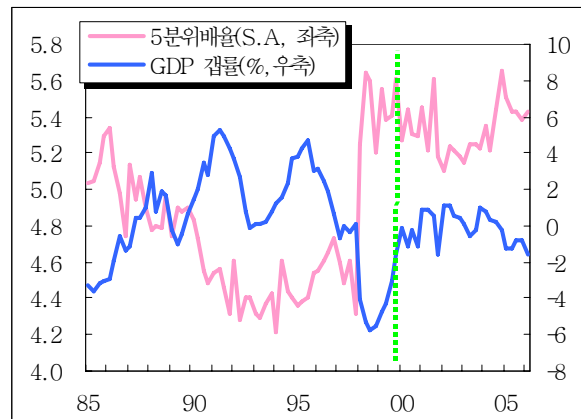


○ 소득계층별 분포상 빈곤층 비중도 다소 늘어나는 모습

소득계층별 분포 추이



계절조정 5분위배율과 GDP갭률



<주> 소득계층별 분류는 OECD 기준에 따라 소득 중간값(median)의 150% 이상을 상류층, 70~150%를 중산층, 50~70%를 중하층,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정의

②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분배 개선이 미흡한 것은 세계화·정보화 등 경제환경 변화, IT에 편중된 성장 등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가 약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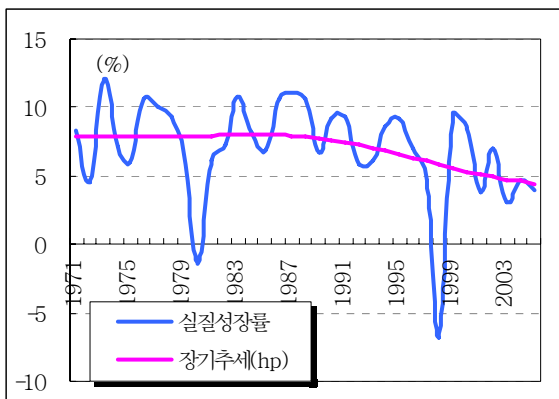
* 소득5분위배율(계절조정)과 GDP갭률과의 상관관계 : (80~90년대) $\Delta 0.8 \rightarrow$ (2000년대) $\Delta 0.3$

3.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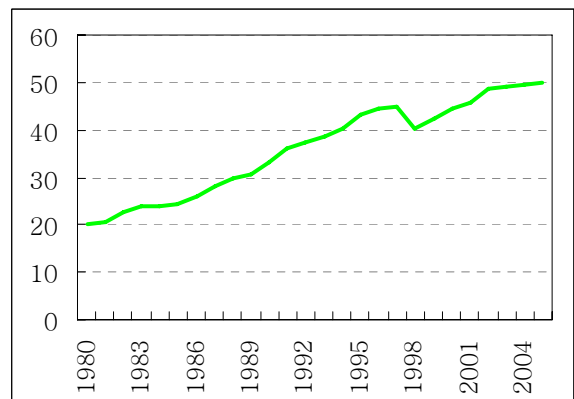
① 요소투입 둔화 등 경제발전단계의 진전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선진국 조기 진입을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 요구

○ 1960년대 이후 고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경제는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크게 축소되었으나, 아직 우리의 1인당 GDP는 미국의 50% 수준에 불과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



1인당 GDP 추이(미국과 비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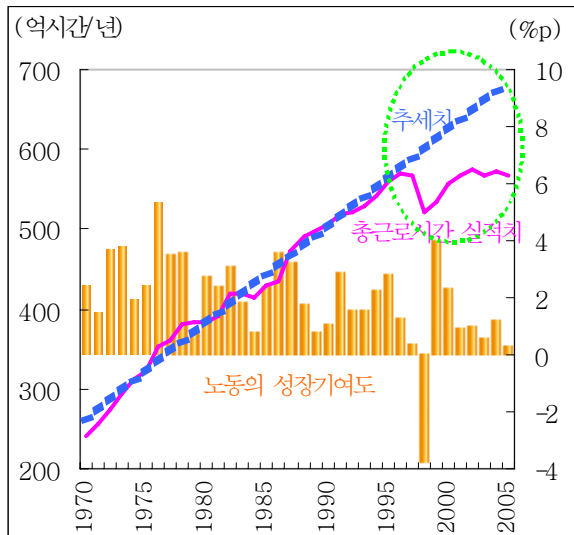


1) 미국의 1인당 GDP(US 달러, ppp기준)를 100으로 하여 우리의 1인당 GDP를 지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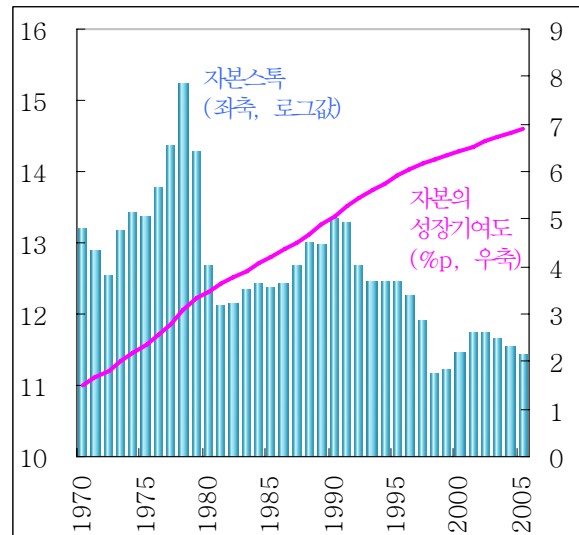
② 성장잠재력 둔화는 경제성숙에 기인된 추세적 현상이나 요소 투입 및 생산성 제고 노력 필요

○ 주 40시간 근무제 등으로 총취업시간이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하락

노동투입 둔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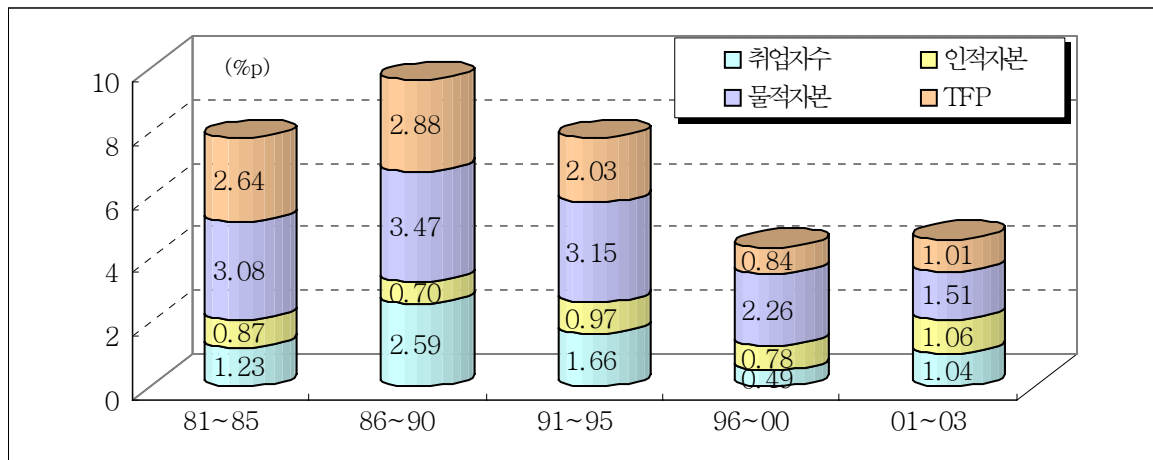


자본투입 둔화 추이



○ 이를 보완해 줄 생산성 향상도 1990년대 후반이후 부진한 모습

1980년대 이후 성장기여도 변화(단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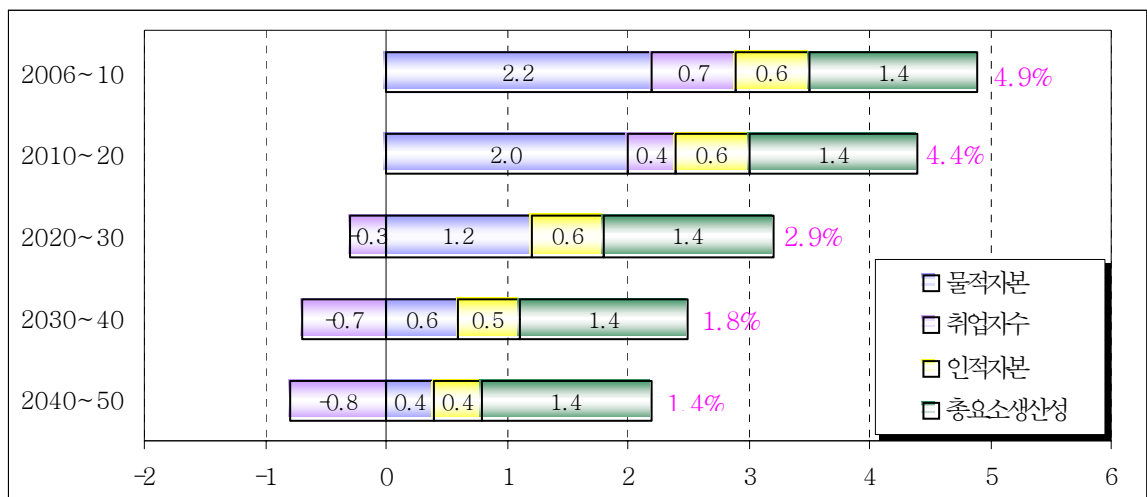


<출처>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KDI, 2004(95년 기준 자료를 2000년 기준으로 재산정)

③ 향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경제 성숙화, 고령화·저출산 등에 따라 추세적으로 점차 낮아질 전망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Baseline 전망)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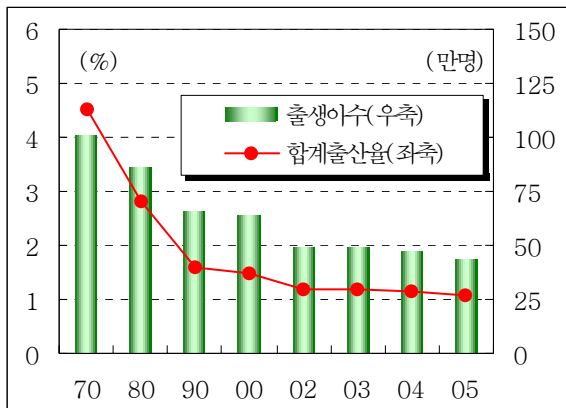


<출처> 거시경제 장기전망 T/F(0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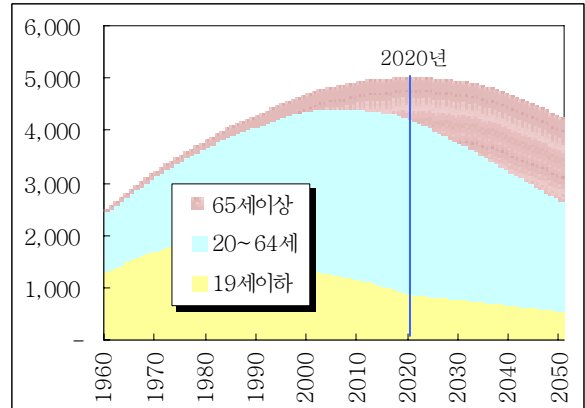
○ 자본 투입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2010년대까지 4%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 2020년대 이후 노동투입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자본투입도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2%대 이하로 낮아질 전망

출산률 추이



우리나라 인구전망



④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긴급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출산율 제고 등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등 자본 투입 확대 노력 강화
- 인적투자 및 R&D투자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GDP대비 R&D 비중과 R&D의 성장기여율

	한 국	미 국
▪ GDP대비 R&D 비중	2.9%	2.6%
▪ R&D의 성장기여율	10.9%	40.2%

<출처> 한은 : 연구개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05.8)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진입장벽 철폐,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경쟁을 확산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 필요

업종별 성장 기여도 (단위 : %, %p)

	1975~80		1981~90		1991~00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 성장률	12.20	7.21	10.58	8.27	7.97	5.34
- 노동·자본 기여도	5.61	8.56	5.62	6.54	3.14	5.47
- 생산성 기여도	6.59	△1.35	4.96	1.73	4.83	△0.13

Ⅱ. 2006년 하반기 대외 경제여건 점검

1. 세계 경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물가압력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

① 세계경제는 고유가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

- 세계 교역도 세계 경제의 견실한 성장이 뒷받침되면서 높은 신장세 지속 예상
- 주요 교역상대국별로 볼 경우, 미국과 중국은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과 유로 경제는 지난해 이후의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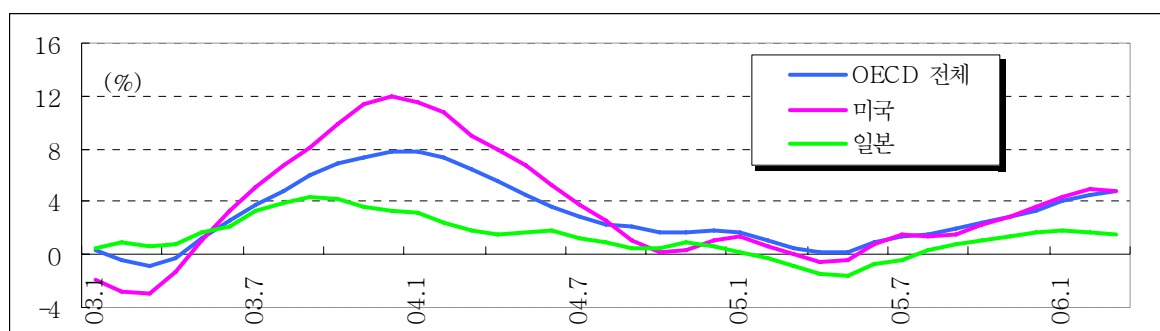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잠재 성장률 ¹⁾	2005 ²⁾	2006 ^{e)}			
			IMF (06.4월)	05.9월	OECD ³⁾ (06.5월)	05.11월
· 세계경제성장률	2.4% 수준	4.8	4.9	4.4	3.1	2.9
(미 국)	2.9~3.0%	3.5	3.4	3.5	3.6	3.5
(유 로)	1.9% 수준	1.3	2.0	2.0	2.2	2.1
(일 본)	1.2~1.4%	2.7	2.8	1.7	2.8	2.0
(중 국)	-	9.9	9.5	8.5	9.7	9.4
· 세계 교역량	-	7.3	8.0	7.4	9.3	9.1

<註> 1) OECD 추정(06.5), 2) IMF기준, 3) OECD 세계 성장률은 회원국(30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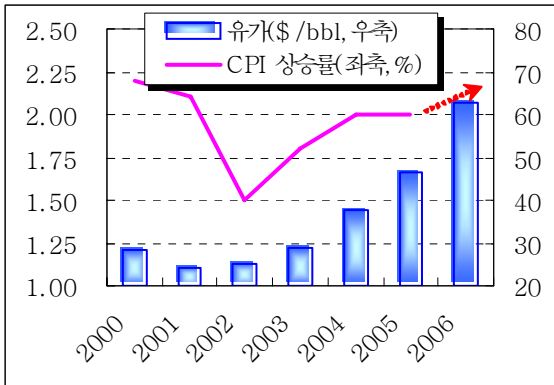
- **OECD 경기선행지수**(실제 경기에 약 3분기정도 선행)도 지난해 4월 저점에서 벗어나 추세적인 상승세 지속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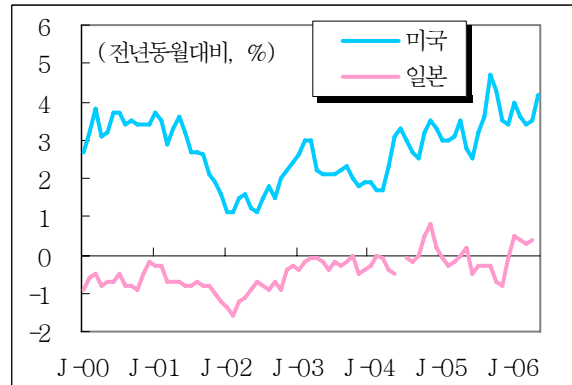


② 주요국 물가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산가격 조정 등으로 세계경기가 영향을 받을 소지

주요국 CPI¹⁾ 상승률 추이



미국·일본의 CPI 상승률



1) 출처 : WEO Economic outlook, OECD 국가 및 신흥공업국 포함

2. 국제 유가 변동성은 축소되겠지만, 고유가 지속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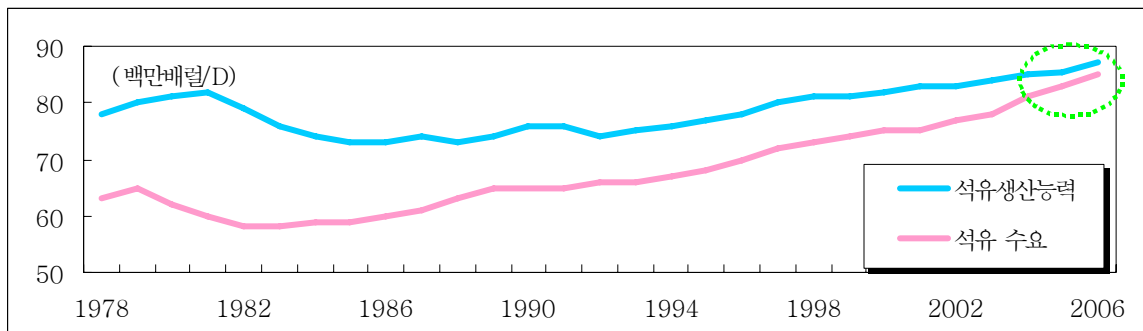
① 금년 4~5월 급등세를 나타냈던 국제유가는 6월 이후 다소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05년 평균	06.1~6월 평균	06.3말	4말	5말	6말
Dubai	49.4 (46.3%)	61.4 (37.9%)	57.9	64.2	65.2	65.2
Brent	54.3 (41.6%)	65.6 (32.9%)	62.0	70.5	69.8	68.5
WTI	56.5 (36.0%)	66.9 (30.2%)	62.9	69.6	70.9	70.9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 고유가, 글로벌 금리상승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석유수요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여유공급능력 제약속에서 산유국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수급여건으로 인해 배럴당 60\$대 중반(Dubai油)의 고유가 추세 지속 가능성 (연간 63\$ 내외)

세계 석유생산능력과 석유수요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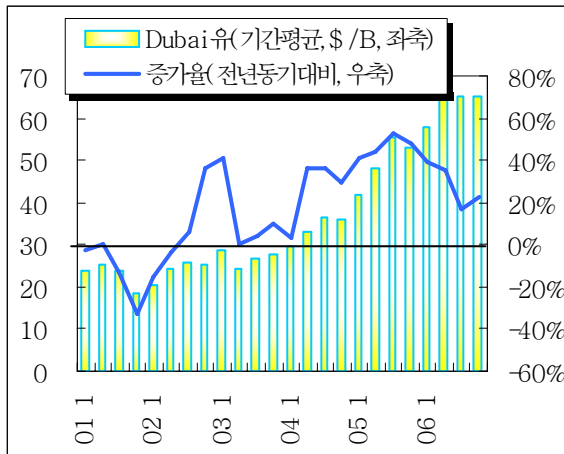
해외 주요 전문기관들의 2006년 국제유가 전망 (단위 : \$/b)

	유 종	전망시점	
		05.12(A)	06.6월(B)
美 석유산업연구소(PIRA)	WTI	57.4(50.4)	68.6(63)
英 세계에너지 연구센터(CGES)	Brent	52.4(47.5)	68.2(64)
美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	Dubai	52.3	61.7
美 에너지정보청(EIA)	WTI	63.3(56.3)	68.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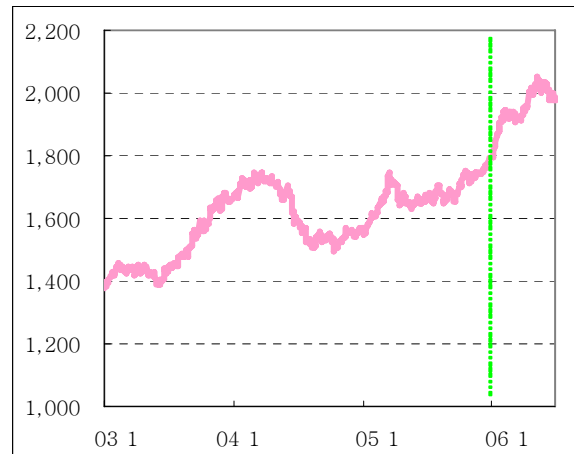
<註> PIRA, CGES, EIA의 ()는 Dubai 환산 기준

- 이 경우, 국제유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상반기 40% 가까운 급등세보다는 둔화되겠지만, 하반기중에도 20% 내외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할 전망

Dubai油 추이 및 전망(분기)



로이터 지수 추이



② 기타원자재가격은 상반기중 구리·니켈 등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시현

- 최근 가격상승세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이고, 글로벌 금리 상승세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중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
- 이에 따라, 최근 주요기관들은 금년중 기타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수정(작년말에는 소폭 하락 예상)

* 기타원자재 가격 전망(%), 괄호내는 작년말 전망치)

· IMF : 05년 10.3 → 06년 10.2 (△2.1)

· OEF(옥스포드 경제연구소) : 05년 10.4 → 06년 18.0 (△4.6)

3. 국제 금융시장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

① 세계적으로 인플레이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정책 금리를 상향 조정

○ 미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6월 연방기금금리를 5.25%로 인상함으로써 2004년 6월 이후 17회 연속 인상(1.0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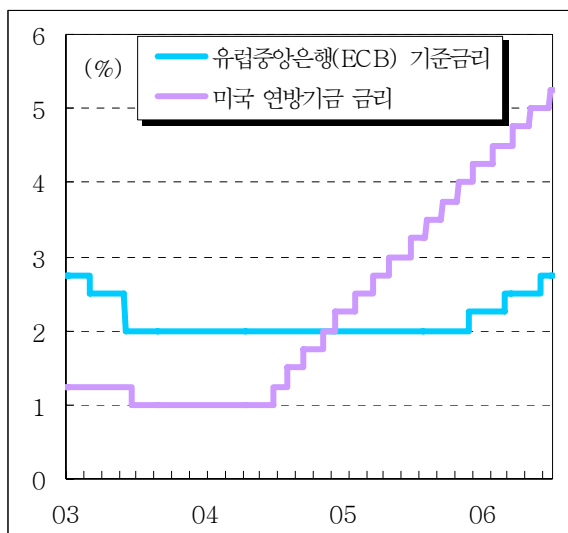
* 유럽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25bp 상향조정(2.50→2.75, 06.6월)

-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4.25%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최근 5%를 상회하는 등 시장금리도 상승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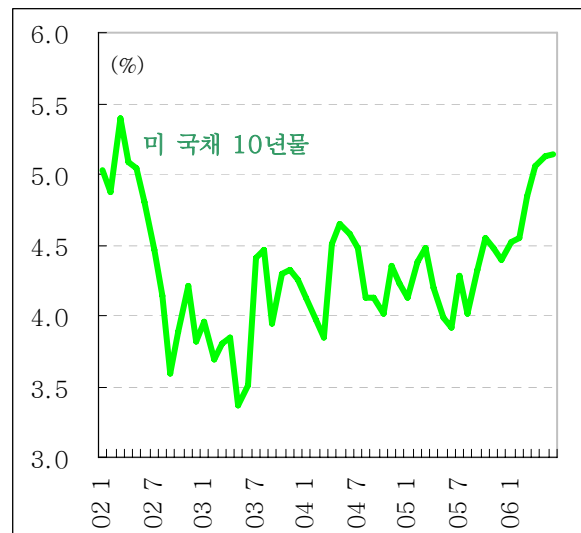
- 주요 투자은행들은 美 연준이 금년 내에 1차례 정도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

* 미 연방기금금리 선물금리 (만기 시점)	5.42 (06.9)	5.47 (06.12)	5.45 (07.3)	5.45 (07.6)
----------------------------	----------------	-----------------	----------------	----------------

미국·유로 정책 금리 추이



미국 시장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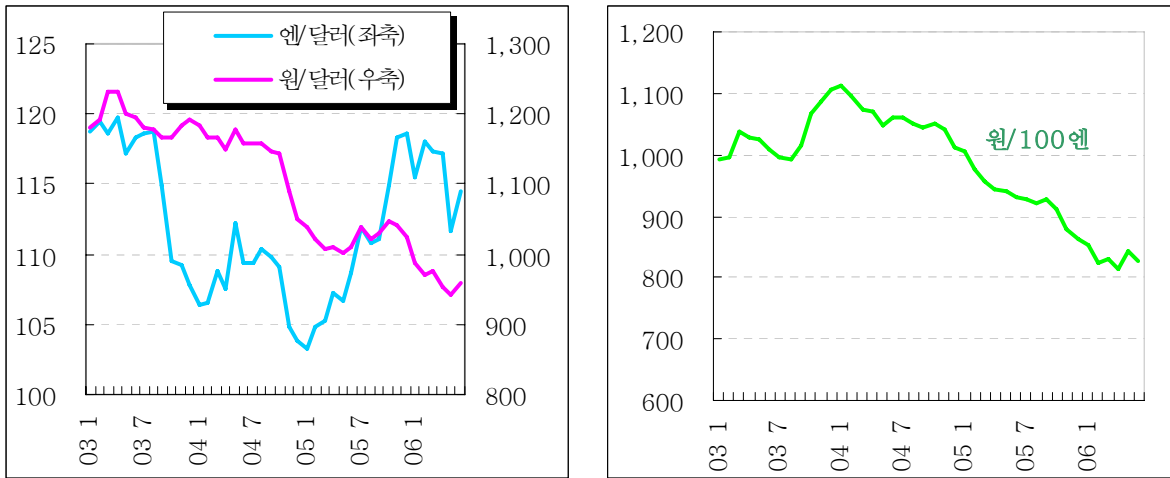


○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축소 및 위험회피경향 강화 등이 나타날 소지

② 미 달러 환율은 지난해 강세를 나타냈으나, 금년들어서는 약세를 시현

- 향후 달러 환율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인플레이에 대응한 각국의 금리인상 속도, 국별 성장 격차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나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등 조정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소지

원·엔·달러 환율 추이



주요 국제 투자은행들의 엔/달러 환율 전망

(기말)

	(전망일자)	2006			
		1/4	2/4	3/4	4/4
실적치		117	114	-	-
Merrill Lynch	(6.16)	-	-	100	101
Lehman Brothers	(6.15)	-	-	109	105
Morgan Stanley	(6.15)	-	-	106	101
JP Morgan	(6.14)	-	-	108	106
CSFB	(6.16)	-	-	110	-

③ 중국 위안화의 경우 지난해 7월 환율제도 변경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 위안/달러(기말) : (04)8.28→(05.7)8.28→(05.12)8.07→(06.6)8.00

- 중국 당국의 점진적인 환율제도 변경 입장 등을 감안할 때, 갑작스런 큰 폭 절상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

4. 세계 IT 경기 **완만한 회복세 지속**

① 세계 IT 경기는 금년들어 점진적인 회복세 시현

- 반도체는 DRAM 공급과잉이 점차 해소되면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휴대폰도 견조한 증가세 유지

② 이에 따라, 주요 전망기관들은 금년 IT 경기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

주요 예측기관 IT경기 전망(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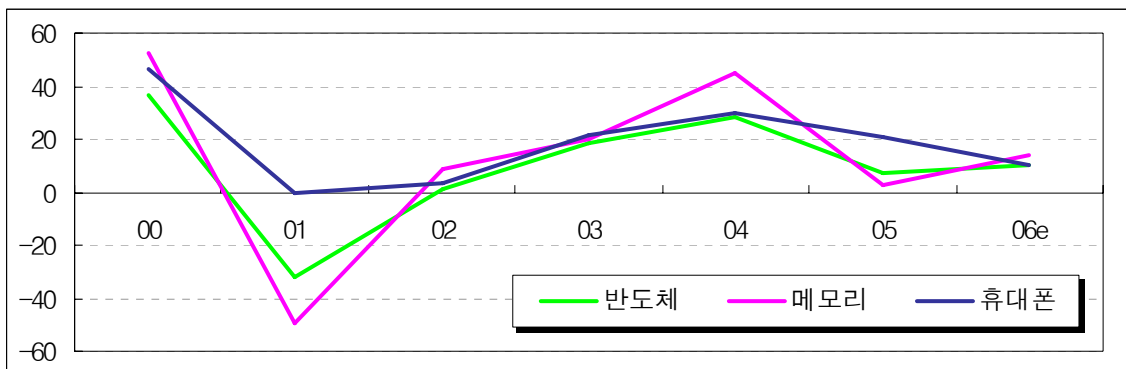
	04	05	06 ^e	중전전망
· 반도체(WSTS*, 06.5)	28.0	6.8	10.1	8.0(05.10)
- 메모리(WSTS, 06.5)	45.0	2.9	14.0	5.9(05.10)
- 비메모리(WSTS, 06.5)	23.8	7.9	9.1	8.6(05.10)
· 휴대폰(Gartner*, 06.1)	29.6	20.5	10.4	8.8(05.8)

<註> 반도체는 매출액 기준, 휴대폰은 물량 기준,

<출처> WSTS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Gartner : 정보기술산업 연구조사기관

- (반도체) 공급과잉해소, 고용량 디지털 기기 보급 확대 등에 따른 수요증가로 회복세 전망
- (LCD패널) 노트북, 디지털TV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증가에 힘입어 물량증가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
- (휴대폰) 작년보다는 다소 둔화되겠으나 10% 정도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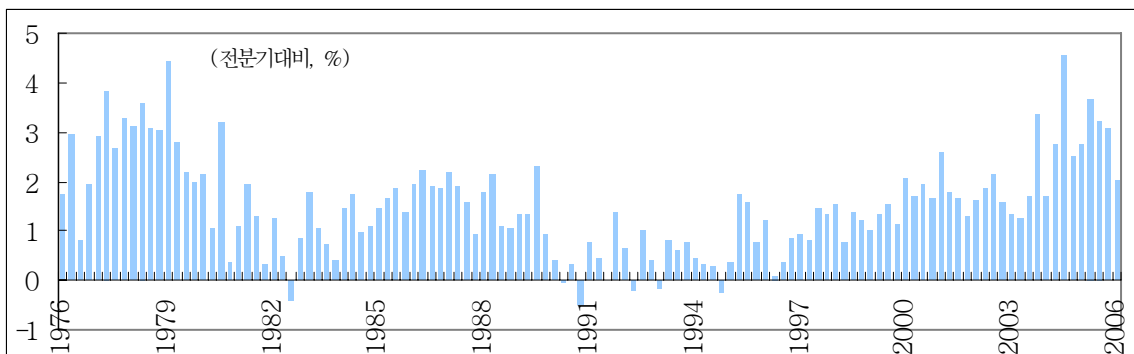
주요 IT 시장 성장률



5. 종합 평가 변동성은 축소될 전망이나 불안요인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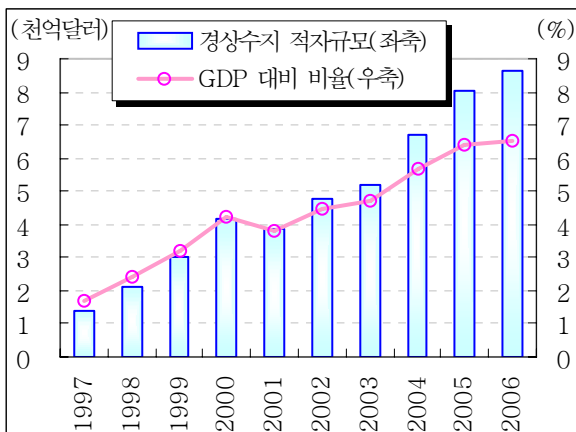
- ① 2006년 하반기 대외여건은 고유가 지속 등 어려움도 있겠으나, 세계경제의 호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변동성은 상반기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② 그러나, 국내경기 둔화로 연결될 수 있는 불안요인이 상존
 - 이란 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국제유가의 추가 급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
 - 글로벌 금리상승 추세속에서 그간 큰 폭 상승했던 주요국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조정을 받을 경우 소비를 중심으로 세계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미국의 부동산가격 상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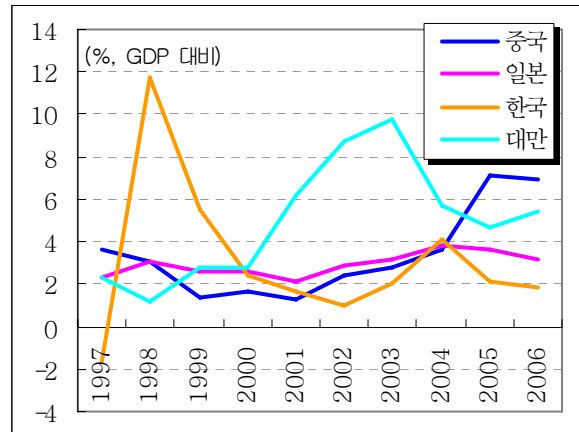


- 미국 경상수지 적자 등 글로벌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주요국 통화간 환율의 급변 소지

미국 경상수지 적자



동아시아 주요국 경상수지 흑자



<註> 2006년은 IMF 전망임

Ⅲ. 국내 경제 전망

1. 성장 잠재 수준의 성장세 전망

(1) 민간소비 : 상반기보다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가계소득여건의 개선 등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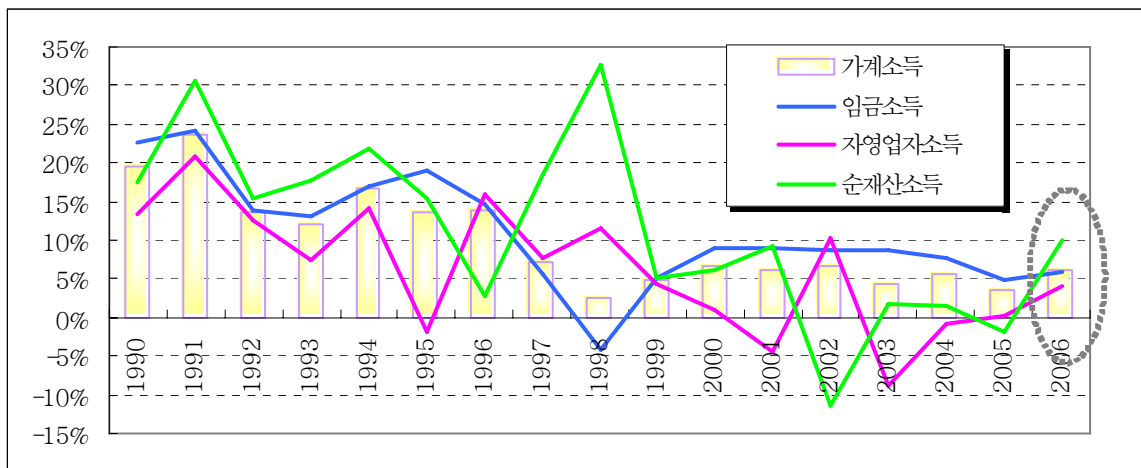
① 금년중 가계소득여건은 완만한 개선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지난해 정체상태를 나타냈던 실질 GNI는 금년중 낮은 수준 이나마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국제유가가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1~2% 수준 증가세 예상)

○ 가계소득(명목기준)은 금년중 6%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임금소득이 국민소득 수준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회복을 반영하여 개인 영업잉여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순재산소득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영향으로 증가세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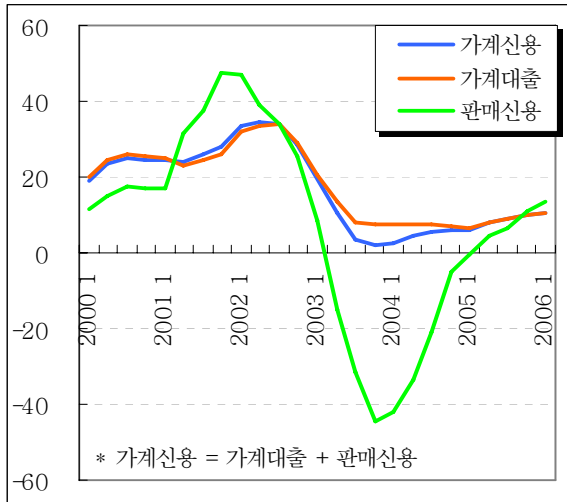
가계소득 추이 및 전망 (명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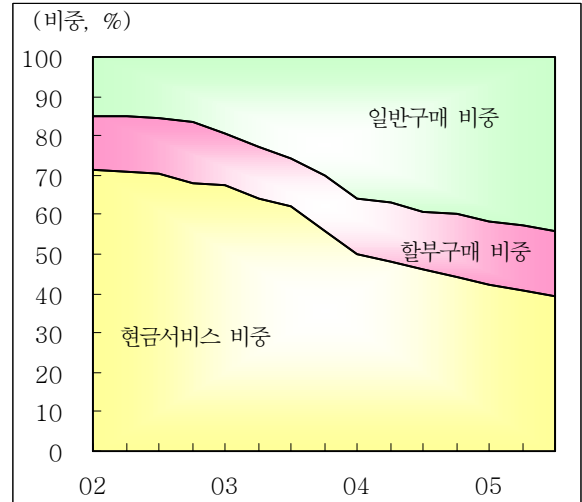
② 가계부채 조정이 대체로 마무리되면서 가계신용여건이 정상화 (지난해 이후 판매신용을 중심으로 가계신용 증가세가 완만하게 확대)

○ 신용카드 사용액중 현금서비스비중이 낮아지는 등 카드신용의 질적 수준도 개선

가계신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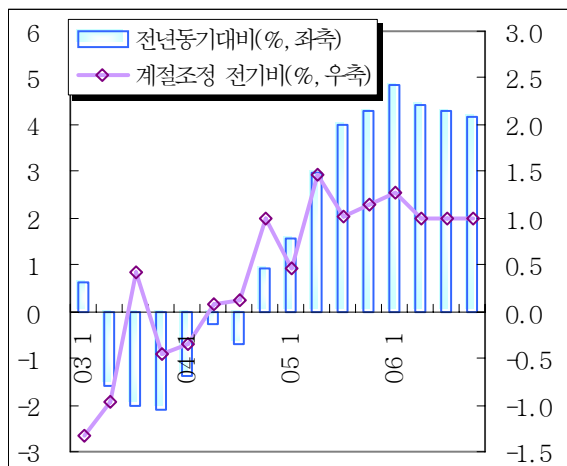


카드사용형태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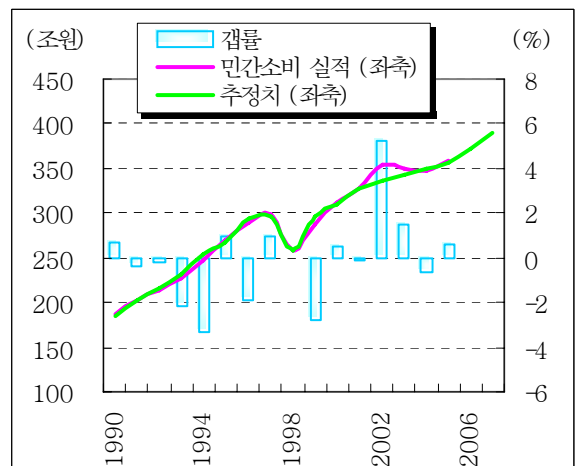


- ③ 다만, 최근 고유가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고 주가 하락, 부동산 가격의 조정 등 (-) 자산효과 가능성 등이 소비 증가세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④ 하반기 민간소비는 지난해 상저하고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4%대 초반(계절조정 전기비 1%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 유지 전망
 - 이에 따라 2006년 연간 민간소비는 당초 전망대로 4%대 중반의 증가세 전망 (가계저축률은 2005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내년 이후로도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4%대의 추세적인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

민간소비 전망



민간소비 장기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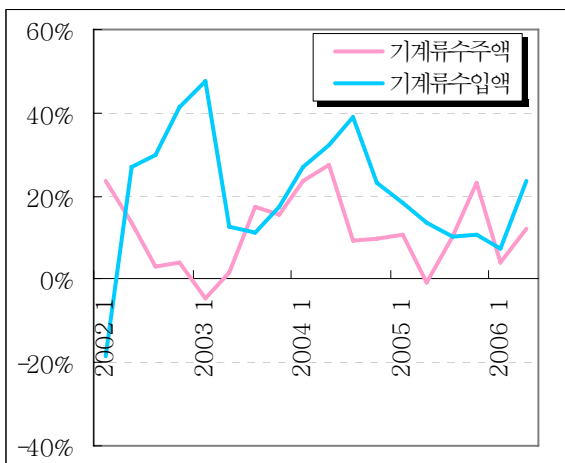


(2) 설비투자 : 내수 회복과 함께 환율 하락, 국내기계수주 호조 등을 감안할 때, 그간의 개선흐름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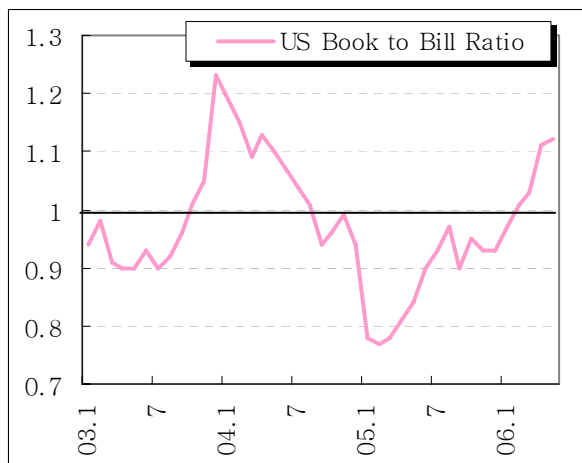
① 기계류 투자는 추세만을 감안한 수준(4~5% 수준)보다 증가세가 다소 확대될 가능성

- 최근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 수입 등 선행지표가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 반도체 경기도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기계류 투자 확대에 기여 예상

기계류투자 선행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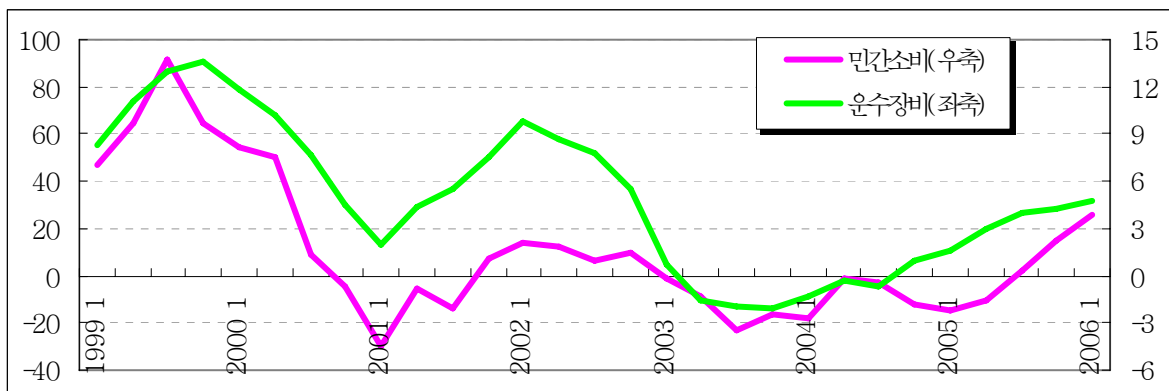


북미 반도체 BB율(수주-출하 추이)



② 운수장비는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을 반영하여 당분간 큰 폭의 증가세 지속 예상

운수장비 투자와 민간소비



- 1999~2000년중 크게 증가한 자동차의 교체연한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예상

* 일반적으로 차량 교체주기는 5~6년, 폐차주기는 11년 정도로 추정 (자동차공업협회)

③ 여타 투자관련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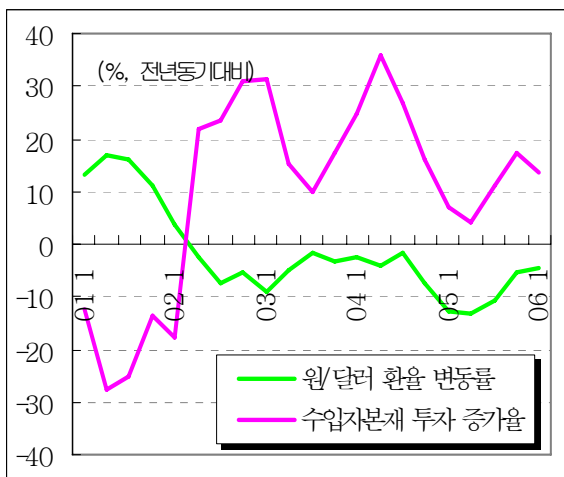
- 최근 환율 하락은 수입자본재 가격 하락을 통해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조정압력도 높은 수준을 유지

* 설비투자조정압력(%p) : (03)1.9→(04)5.4→(05)2.9→(06.1/4)7.8→(4~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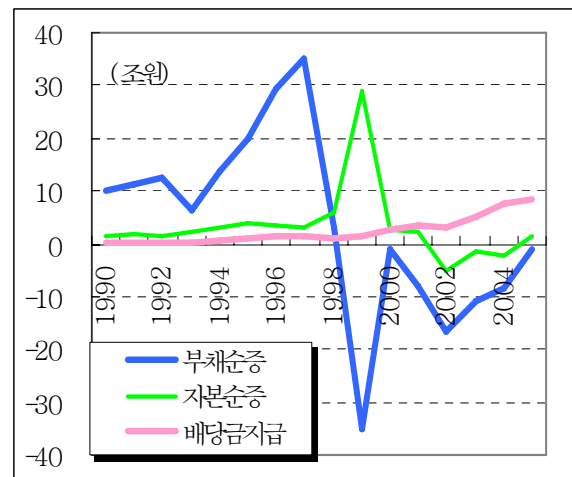
-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채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 개선도 대체로 마무리되는 모습

* 2005년 들어 상장기업 순부채가 그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

환율과 수입자본재 투자



상장기업 현금흐름



- 다만, 최근 기업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고, 유가·환율 등에 따른 기업 채산성 악화가 투자 확대를 제약할 소지

④ 하반기 설비투자는 상반기와 비슷한 7%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연간 증가율 7% 내외 전망)

- 다만 중국의 국내외 시장침투 확대, 기업 투자성향 보수화 등 투자확대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큰 폭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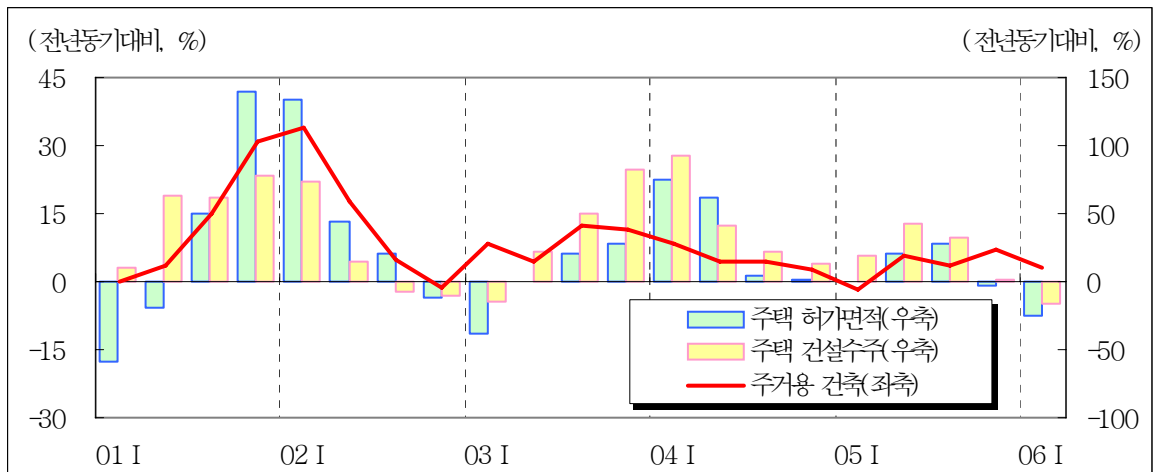
- 내년의 경우에는 금년과 같은 경기순환적 개선효과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여 증가세가 둔화될 소지

(3) 건설투자 :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증가세 전망

① 주거용 건물 건설은 부동산대책의 영향과 선행지표인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둔화될 전망

- 2004년 4/4분기~05년 3/4분기중 크게 증가한 주택수주물량이 아직 남아 있으나
- 이중 재건축·재개발 물량(약 15%)의 착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지난해 4/4분기 이후의 수주 감소세에 따른 영향이 점차 나타날 가능성

주거용 건설투자와 선행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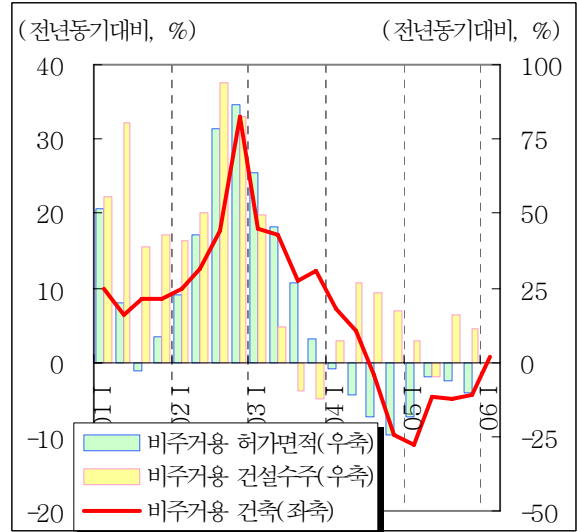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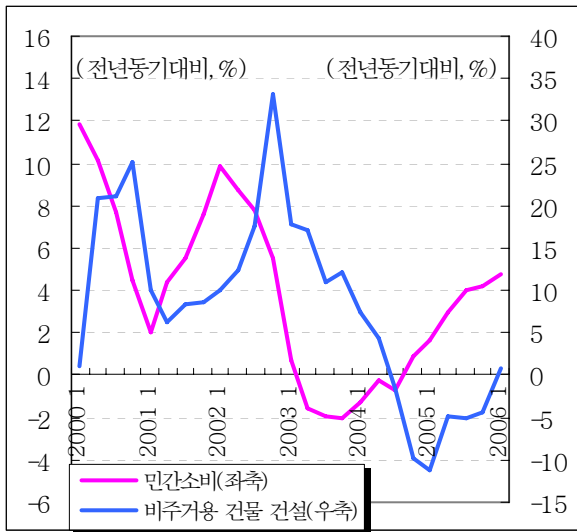
- 다만, 공공부문 주택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민간부문 부진을 어느정도 보완할 것으로 예상

* 공공부문 주택승인(만호) : (03)12→(04)12→(05)14→(06)21
 <주> 06년은 건교부 목표치

② 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내수회복을 반영하여 점차 개선될 전망

* 민간소비와 비주거용건물건설의 3~4분기 시차상관계수 : 0.76

- 비주거용 건설수주를 중심으로 선행지표도 회복세



③ 토목 건설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될 전망

- BTL·BTO 등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금년 공공 부문 전체 사업규모는 전년대비 12.2% 증가

공공부문 건설사업 규모

(단위 : 조원)

	2005	2006	증감률(%)
▪ 재정투자	35.8	36.6	2.0
▪ 민자·공기업 건설투자	8.6	13.4	54.7
→ 합 계	44.5	49.9	12.2

- 금년에는 재정조기집행을 실시하지 않아 상반기 부진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반사적 효과 예상

③ 하반기 건설투자는 상반기보다 증가세가 다소 확대(1~2%) 되겠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어 연간 증가율은 당초 전망(2% 내외)보다 낮은 1% 내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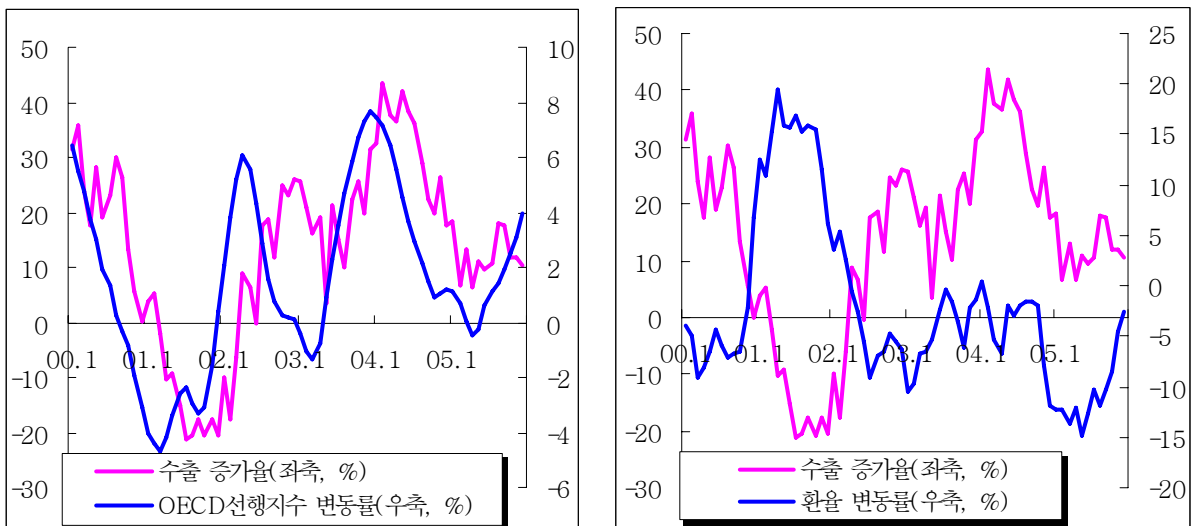
- 내년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조정시 주거용 건설투자의 추가 위축 소지가 있으나
- 순환주기상 위축국면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도시 시범사업·행복도시·혁신도시 등 대형 사업들도 본격 집행될 예정이어서 건설경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4) 수출·입 : 수출은 환율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한편, 수입은 내수 회복, 유가상승 등 영향으로 수출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

① 금년 수출(통관)은 당초 전망(3,180억불, 11.8% 증가)보다 다소 많은 3,200억불(12.5%)내외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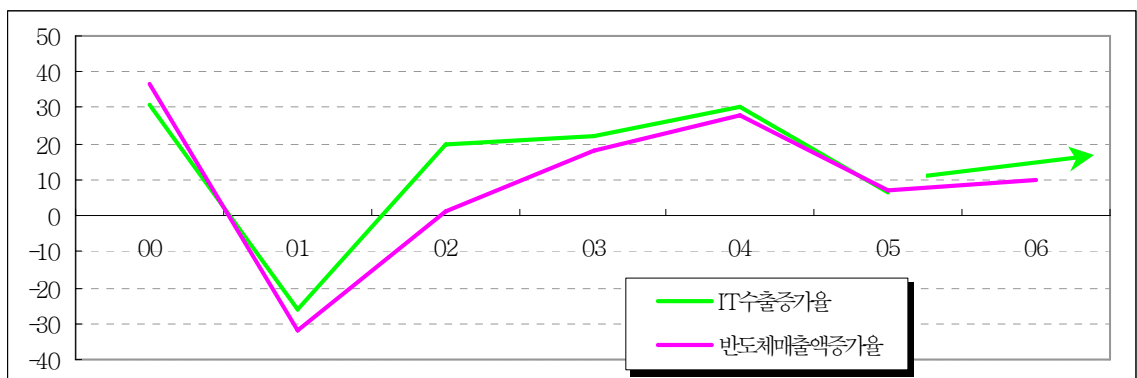
○ 환율 하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세계경제 성장 호조, IT 경기 회복, 석유제품 단가상승 등으로 상쇄

OECD 경기선행지수· 환율과 수출 증가율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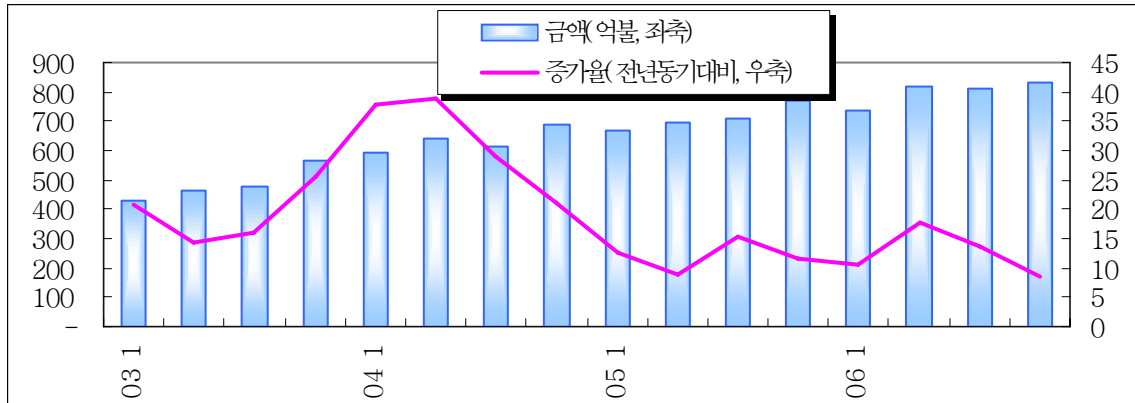
○ 부문별로는 비IT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 경기 회복에 따라 IT 수출 증가세가 작년보다 확대될 전망

세계 IT 경기와 우리나라의 IT 수출



- 분기별로는 3/4분기까지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4/4분기에는 전년도 기저효과,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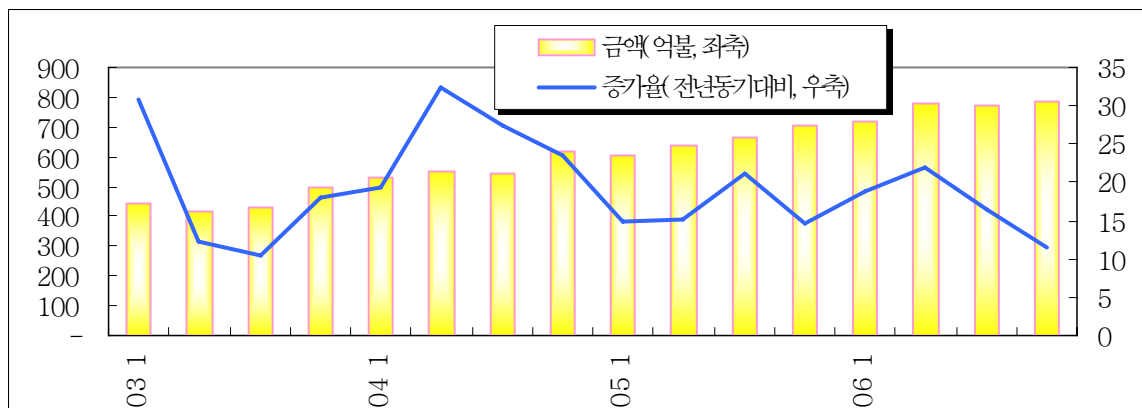
분기별 수출 전망



② 금년 수입(통관)은 당초 전망치(2,950억불, 12.9%)에 비해 크게 증가한 3,050억불(16.8%) 내외를 나타낼 전망

-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 등 에너지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내수 회복과 환율 하락 등으로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 증가세도 확대될 전망
- 분기별로는 3/4분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4/4 분기에 수출과 마찬가지로 증가세 둔화 예상

분기별 수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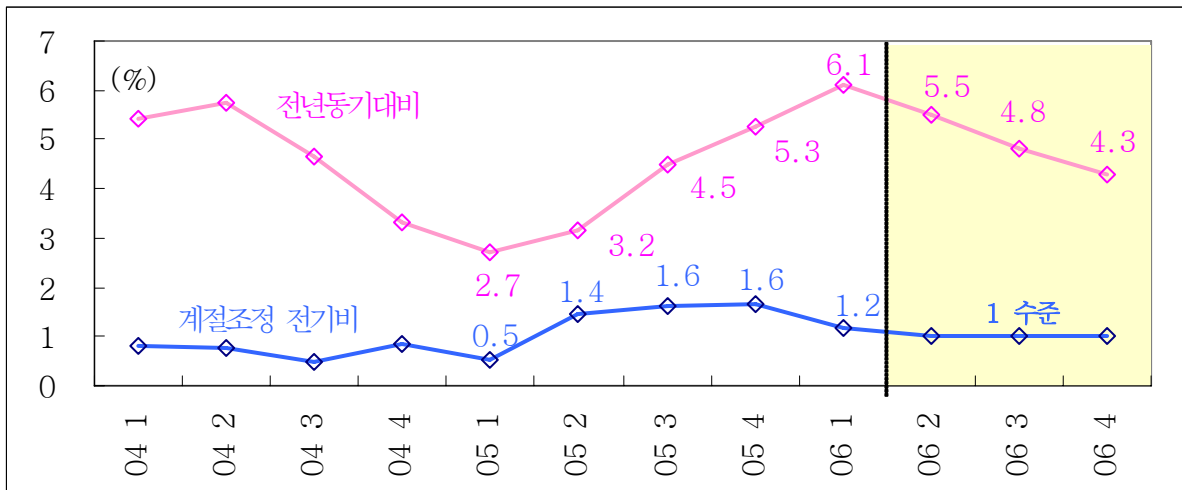


(5) 종합 평가 : 2/4분기 이후 계절조정 전기비 1%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여 당초 전망대로 연간 5% 성장이 가능할 전망

①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빠른 성장속도가 잠재 수준의 성장세로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

- 1/4분기에는 예상보다 빠른 내수회복에 유가 상승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를 시현
- 2/4분기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내수와 대외부문이 보다 균형을 이루면서 계절조정 전기비 1%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가 연간 5% 성장이 가능할 전망
- 이 경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상저하고 성장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 인해 상반기 5%대에서 하반기에는 4%대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2006년 분기별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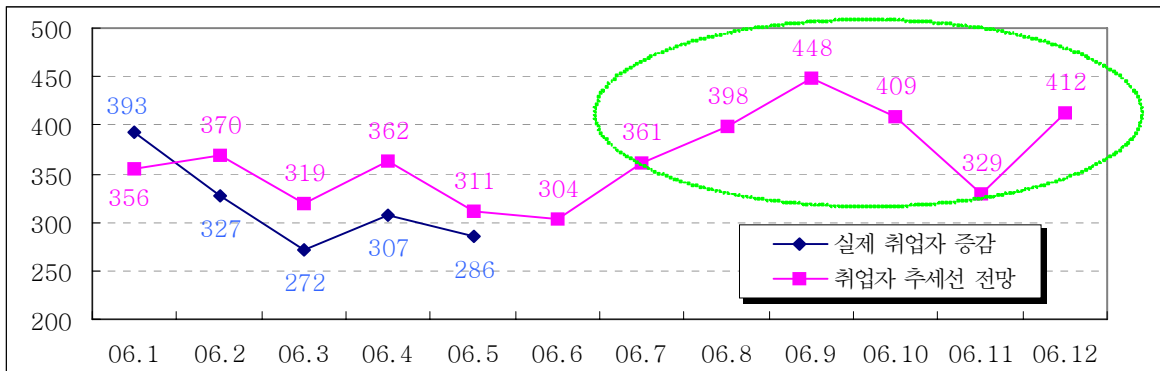
② 내년의 경우 민간소비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경기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다만,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주요국 자산가격 조정 등 위험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대비 필요

2. 고용 추세수준인 35만명 내외의 고용 증가 전망

- ① 취업자 증가규모는 상반기 31만명 내외에 이어 하반기중 35만명 이상을 나타내어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35~40만명) 보다 다소 축소된 35만명 내외 예상
- 고용의 경기후행적 성격, 계절조정 취업자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 고용사정은 상반기보다 개선될 전망
 - 2003년 이후 3년연속 시행했던 재정조기집행이 금년에는 시행되지 않은 데 따른 반사적 효과도 기대

취업자 증감 추세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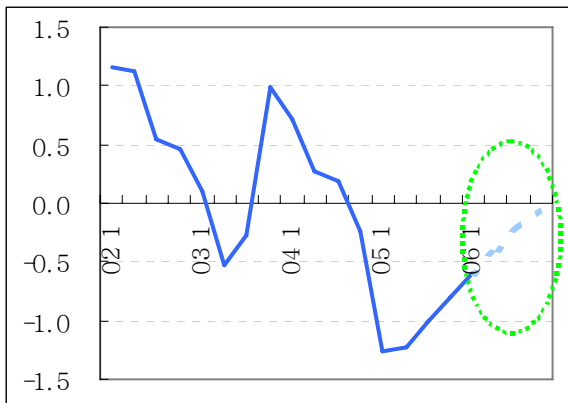
- 산업별로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1~5월중 42만명)에서 내수회복을 반영하여 연간 40~45만명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며
 - 제조업(1~5월 Δ 8만명)은 고용흡수력 둔화에 따른 추세적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제조업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할 때 감소폭은 다소 축소되어 연간 Δ 5만명 내외 감소 예상
- ② 실업률은 당초 전망(3.7%)을 소폭 하회할 전망(3.5~3.6%)
- 연간 취업자 증가율이 1.5%(35만명 내외)로 지난해(1.3%) 보다 상승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1~5월중 1.1%)은 지난해(1.4%)에 못미칠 가능성
- ③ 내년의 경우 잠재수준의 성장이 이어질 경우 고용사정 역시 추세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3. 물가 소비자물가 3% 이내 유지 등 안정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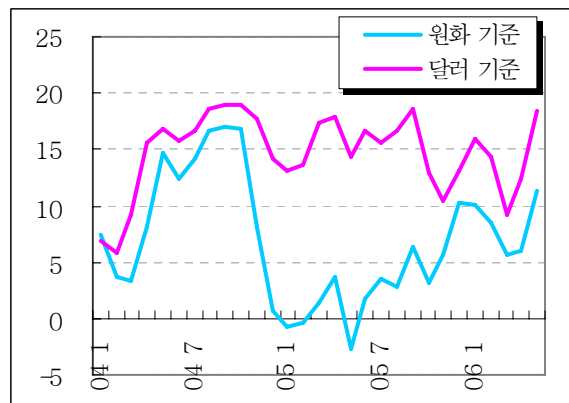
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중 2%대 초·중반을 나타낸 후 하반기중 오름세가 다소 확대된 2%대 후반을 나타낼 전망

- 총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경기회복흐름을 반영하여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디플레이션 지속)
- 비용측면에서는 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였으나, 그간의 환율 하락으로 상승압력이 완화

GDP 갭률 전망



수입물가 추이



- 농축수산물에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는 한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공공요금은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일부 상승 전망

② 근원물가는 총수요압력의 상승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2%대로 오름세가 커지겠으나 연간 2%대 초·중반의 안정세 유지 전망

2006년 물가 전망(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e	4/4 ^e	연간 ^e
소비자 물가	3.2	3.0	2.3	2.5	2.7	2.3	2.4	2.7	3.2	2.7
근원 물가	3.0	2.5	1.9	1.8	2.3	1.6	1.9	2.5	2.9	2.3

③ 내년의 경우에는 총수요측면을 중심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4.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큰 폭 축소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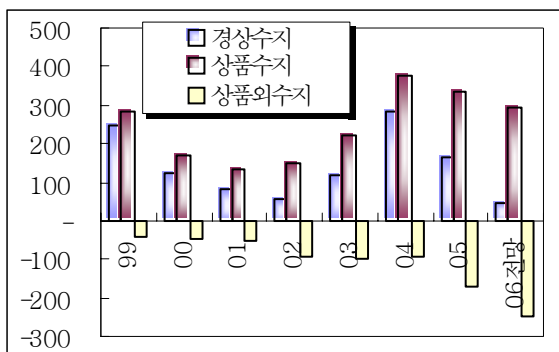
- ① 경상수지는 하반기에 흑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간 흑자규모는 당초 전망보다 크게 축소된 30~50억불 내외(GDP대비 0.5% 내외) 예상
- 상품수지는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당초 전망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당초 : 345억불 → 수정 : 270~290억불)
 - 서비스수지는 환율하락에 따른 해외여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보다 적자폭 확대 전망(당초 : △160억불 → 수정 : △200억불)
 - 소득수지는 대외이자, 배당 지급 증가로 적자규모가 다소 커질 전망(당초 △10억불→금번 △15억불)

2006년 경상수지 전망(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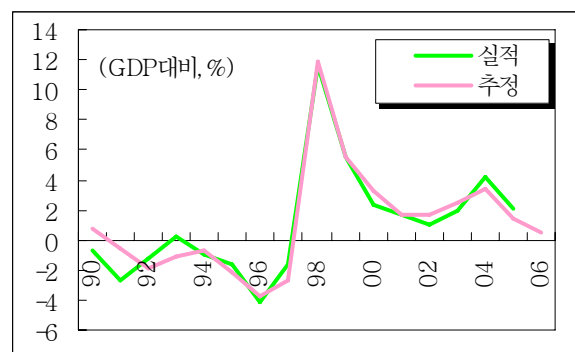
	05.12월 전망	06.7월 전망	1/4	2/4 ^e	3/4 ^e	4/4 ^e
경상 수지	150	30~50	△11	5~10	5~10	30~40
- 상품 수지	345	270~290	52	75~80	70~75	75~85
- 상품외 수지	△195	△240	△63	△60후반	△60중반	△40중반

※ 세계성장, 국내성장, 원/달러 환율, 유가 등으로 구성된 모형 추정 결과 금년 경상수지는 GDP대비 0.5% 내외로 축소 예상(R²=95%)

2006년 경상수지 전망



경상수지 모형추정 결과



- ② 이러한 전망은 국제유가가 현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유가 추가 급등시 흑자규모가 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 내년의 경우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둔화시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가능성

IV. 종합 평가

- ① 우리 경제는 연초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
 - 지난해 저점을 벗어나 빠른 속도로 회복된 경기는 최근 내수와 대외부문이 보다 균형을 이루며 잠재 수준의 성장세로 안정화
 -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체감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
- ②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 등 내수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잠재수준의 성장과 고용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그러나, 주요 교역상대국의 부동산 등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국내경기 둔화로 연결될 수 있는 불안요인이 상존
- ③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은 체감경기 개선과 함께, 경기회복세를 장기간 지속시켜 나가는 데 주력
 - 체감경기 부진은 소비 등 내수 회복세 지속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추진
 - 내년 이후로도 잠재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고용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활력의 재충전이 긴요한 과제
 -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육성
 - 이와 함께 대외개방, 경제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

2006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2005년				2006년				2006년 당초 전망	
	연간			하반	연간			하반		
	1/4	2/4	3/4		4/4	1/4	2/4			상반
< 전망 전제 >										
▪ 세계경제(ppp)	-	-	-	-	4.8	-	-	-	4.9	4.3
▪ 국제유가(Dubai)	41	48	55	53	49	65	62	65	63	54
< 성장 >										
▪ 총소비	2.7	3.2	4.5	5.3	4.0	5.5	5.8	4.5	5.1	5.0
- 민간소비	1.9	3.2	4.2	4.3	3.4	4.4	4.6	4.3	4.5	4.4
▪ 총고정자본형성	1.6	3.0	4.0	4.2	3.2	4.4	4.6	4.2	4.4	4.4
- 설비투자	0.4	2.0	1.9	4.2	2.3	1.8	2.7	3.8	3.3	3.8
- 건설투자	2.9	2.7	4.3	10.2	5.1	6.8	6.9	7.1	7.0	6.5
▪ 총수출	-2.2	1.6	0.3	0.9	0.4	-1.5	-0.4	1.7	0.7	2.0
- 재화 수출	7.1	5.3	11.2	10.4	8.5	17.7	14.6	10.5	12.5	9.2
▪ 총수입	7.7	6.3	13.1	11.4	9.7	18.5	15.1	10.7	12.8	9.5
- 재화 수입	5.4	6.0	11.0	5.3	6.9	16.2	14.3	10.9	12.5	9.2
- 제외 수입	3.0	3.9	10.5	7.0	6.1	16.0	13.9	10.4	12.1	9.0
< 고용 : 취업자(만명) >	14.3	38.2	37.9	29.3	29.9	30.0	31.5	38.5	35.0	37.5
< 물가 >										
▪ 소비자 물가	3.2	3.0	2.3	2.5	2.7	2.4	2.4	3.0	2.7	3.0
▪ 근원 물가	3.0	2.5	1.9	1.8	2.3	1.9	1.8	2.7	2.3	2.7
< 경상수지 (역불) >										
▪ 상품수지	58.8	26.0	26.5	54.3	165.6	7.5	-3.7	42.5	40.0	150.0
- 상품 수출(통관,%)	91.6	86.4	75.8	80.9	334.7	77.5	129.7	150.0	280.0	345.0
- 상품 수입(통관,%)	12.7	9.0	15.4	11.4	12.0	17.1	13.9	11.2	12.5	11.4
▪ 상품외수지	14.7	15.1	20.8	14.9	16.4	19.6	19.3	14.4	16.8	12.7
	-32.9	-60.4	-49.3	-26.6	-169.1	-67.0	-130.4	-110.0	-240.0	-195.0

< 참고 > 주요 전망기관들의 2006년 경제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06년															
	1/4			2/4			상반			하반			연간			
	실적	한은	KDI	금융研	삼성研	LG研	한은	KDI	금융研	삼성研	LG研	한은	KDI	금융研	삼성研	LG研
< 성장 >	6.1	5.5	5.8	5.3	5.3	5.3	5.8	6.0	5.7	5.7	5.7	4.4	4.8	4.7	4.1	4.0
▪ 총소비	4.9	-	4.6	-	4.6	4.8	-	4.8	-	4.9	4.8	-	4.4	-	-	3.9
- 민간 소비	4.8	4.4	4.8	4.8	4.5	4.7	4.6	4.8	4.8	4.7	4.8	4.2	4.6	4.3	4.1	3.9
▪ 총고정자본형성	3.9	-	4.8	-	3.7	3.0	-	4.4	-	3.8	3.5	-	4.6	-	3.4	3.9
- 설비 투자	6.9	6.5	9.9	8.7	7.9	8.0	6.7	8.4	7.8	7.4	7.5	5.9	8.7	7.1	6.2	6.5
- 건설 투자	1.2	-0.3	1.4	1.8	0.9	-0.5	0.3	1.3	1.5	1.1	0.4	1.6	1.8	2.2	1.5	1.9
▪ 총수출	11.5	-	12.0	-	-	13.1	-	11.8	-	11.5	12.3	-	11.5	-	-	9.6
- 재화 수출	11.6	-	12.6	-	-	14.0	-	12.1	-	11.6	12.8	-	12.2	-	-	9.9
▪ 총수입	12.3	-	11.6	-	-	10.6	-	12.0	-	12.3	11.5	-	12.4	-	-	7.7
- 재화 수입	11.8	-	11.2	-	-	10.8	-	11.5	-	11.8	11.3	-	12.1	-	-	6.4
< 고용 : 취업자(만명) >	33.1	30	-	-	-	30.8	32	-	-	-	-	38	-	-	-	39.3
< 물가 >																
▪ 소비자 물가	2.3	2.4	2.5	-	2.6	2.4	2.4	2.4	-	2.5	2.4	2.8	3.0	-	3.1	2.9
▪ 근원 물가	1.6	1.9	2.0	-	-	2.0	1.8	1.8	-	1.6	1.8	2.8	2.8	-	-	2.5
< 경상수지(억불) >	-11.2	11	8	9	24	6	0	-3.2	-2	12.8	-5	40	34	55	10	42
▪ 상품수지	52.2	78	77	-	-	78	130	129	-	-	130	150	135	-	-	146
- 상품 수출(통관, %)	10.6	16.3	13.2	-	-	16.0	13.9	11.9	-	-	13.3	11.1	12.4	14.0	-	10.1
- 상품 수입(통관, %)	19.0	13.3	16.5	-	-	18.3	12.6	17.8	-	-	18.7	7.7	15.5	15.2	-	11.4
▪ 상품외수지	-63.4	-67	-70	-	-	-71	-130	-133	-	-	-134	-110	-100	-	-	-104